

발명특허

03

INVENTION & PATENT



시론

특허기술 개발과 기업경영

발명칼럼

21세기 한민족의 키워드는 창의력이다

디자인 전쟁은 특허전쟁

국제특허분쟁지도(미국편)

미국의 특허분쟁에 대한 판례

분쟁대비 특허정보분석보고서

기계, 금속, 건설, 정보, 통신분야

특허확대경

특허분쟁 사례 - 특허법원 판결

 한국발명진흥회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온 세상을 밝힙니다
특별한 쇼핑을 바이인벤션과 함께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특허** & **아이디어** 충전소”

재미있는 발명품에서 똑똑 튀는 생활속 아이디어상품까지~~

독특하고 참신한 “감성아이템 100% 충전샵”





특허정보조사

(Patent Information Service - Search & Analysis)

기술개발의 첫걸음입니다!

|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전세계 특허/비특허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 시 선행출원 유무의 확인, 경쟁사의 기술동향조사, R&D방향 설정 및 중복투자 방지, 특허분쟁 방지 및 대응에 활용

| 특허맵(Patent Map)서비스 |

특허정보에 포함되어진 항목(출원인명, 국제특허분류기호, 발명을 구성하는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분류 → 분석 → 가공하여 이를 도표·도식화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기술의 발전추이, 미래흐름의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여 체계적인 특허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특허(IP)컨설팅 / 교육지원 |

특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SMEs) 등을 위해 KIP의 전문인력이 특허관리, 선행기술조사 등에 관한 기법 컨설팅/교육지원



신청
상담
안내

선행기술조사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유현주 02-3452-8144(\$90)

일 반 상 담 : 원태희 02-3452-8144(\$24)

팩 스 : 02-3453-2966

특허맵 서비스/특허컨설팅/교육지원

신청및상담: 배경완 02-3452-8144(\$31)

<http://www.forx.org>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47-9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전화: 02-3452-8144 / 팩스: 02-3453-5951 / 고객센터전화: 080-012-7700

특허기술정보서비스: www.kipris.or.kr 특허정보조사서비스: www.forx.org

대한민국 과학교육과 함께 해 온 43년!

The **43th**
Anniversary
1964~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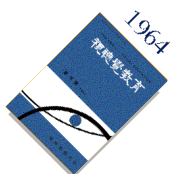


과학교육의 중심, 월간 「과학교육」은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학교육 종합전문지입니다.

월간 「과학교육」은 초·중등 교사는 물론
대학교수, 과학교육 관계자들에게 정보교
환의 장과 학술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과학교육 관
련 각종 학습자료 제공과 연구 자료들의
보존은 물론 외국의 과학교육관련 소식들
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월간 과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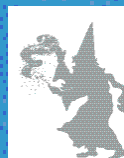
월간 「과학교육」은 우리 과학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더 나은
내일을 일구어갈 월간지와 전문단행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6 과학기술부인증
우수과학도서 선정



Science Drama



과학연극을 활용한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 책의 구성

- Part I 과학교육과 과학연극
- Part II 과학교육 목표에 따른 과학연극 활용 사례
- Part III 과학연극 수업의 준비와 실시
- Part IV 과학연극 수업을 위한 대본과 지도자료
- Part V 과학연극 경연과 동아리 활동

윤혜경, 장병기, 나지연 / 4X6배판 / 300쪽내외 / 가격 15,000원



드림웍스21

• 121-869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7-15 (2층)
• TEL : 02-333-2418~9 / FAX : 02-324-7589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대학생 특허정보교육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지금 시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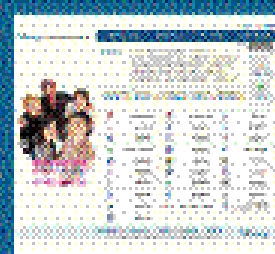
특허지도인력, 교재, 전문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이공계 대학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무료로** 다음과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learning 교육과정 제공

- ▶ 전문회원 발명·특허 e-learning 교육과정 제공
- ▶ e-learning의 학습관리 지원
 - 개별통화이치 개설 및 과정 진도체크
 - 내역별 학습진행, 평가기준에 따른 과정개설
 -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온라인으로 형식 답변
 - 튜터링 (학생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 학생개별별 학습타도 평가, 과제물게시 및 평가, 공지사항 게시
 - 학습도론 관리 학습관리 불친사상 처리 등

offline 교육지원

- ▶ 오프라인 강의 특강·연리사 등 전문 강사 지원
- ▶ 전문가에 의한 중간기밀평가, 과제물현역 지원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팀
- 상담주: 02-6456-2100 / 02-6456-2101
- 상담주: 02-6456-2172 (내선 7번선)

www.univ.ipacademy.net



18



19



20

Invention & Patent

PNews

KIPA 소식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18

KIPO 소식 특허청 행사 및 소식 22

국제동향 해외특허뉴스 28

PColumn

시론 특허기술 개발과 기업경영 32

발명칼럼 21세기 한민족의 키워드는 창의력이다 36

발명칼럼 디자인 전쟁은 특허전쟁 40

사업브리핑 '07년도 지식재산산출사업 운영계획 44

PReport

국제특허분쟁지도(미국편) 미국의 특허분쟁에 대한 판례 48

분쟁대비 특허정보분석보고서 기계, 금속, 건설, 정보, 통신분야 52

특허확대경 특허분쟁 사례 - 특허법원 판결 60

회원기업 탐방 햇님뜸 보성사 64

특허기술평가결과와 활용사례 특허기술 제값받기 - (주)드림테크 66

PInformation

임선하 창의교실 창의로 발명 꺼안기 72

발명아이디어 성공을 찾아서 사랑의 힘 76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물레발명이야기 80

특허 Q&A 지식재산권 관련 물고, 답하기(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2

건강하게 삽시다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 예방 및 재활 치료과정 86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과정 89



발명특허 03



한국발명진흥회

• 본지는한국도서관지윤리위원의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 본지에게재된기사와본회의견해와는다를수도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2007년 3월호 제32권 제3호(통권368호)
발행인/편집인 | 이 구 택
인쇄인 | 이 평 원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35-980)
전 화 | 02)3459-2800(대)
인 쇄 | 2007년 2월 25일
발 행 | 2007년 2월 30일
인쇄처 | 휘문인쇄사 (02)2276-1234



오프라인교육 연간 일정안내

▶ 연간교육일정

※ 기업단체위탁교육은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월	분야	과정명	일자	과정소개
3월	일반	지식재산권기초 1차	3-6~3-9	- 지식재산권 기본이론 습득과 실무 적응력 배양 - 법률사무요원의 기본 소양에서 부터, 클레임 해석 능력, 문서 작성능력 등 실무 능력 배양을 통한 핵심인재 육성 - 기업 내 특허담당자의 특허관리, 전략 기획수립 등 실무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내용과 사례 중심의 학습
	특별	특허법률사무요원양성 Step4	3-12~4-2	
	일반	기업특허관리실무 1차	3-21~3-23	
4월	일반	기술이전 & 계약 및 라이선싱	4-11~4-13	- 기술이전, 계약 및 라이선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지식함양 및 업무능력 스킬업 - 각국의 특허제도 비교 고찰을 통해 지재산 국제적 보호 동향 및 관리능력 제고
	일반	해외특허전문(일본, 중국, 유럽)	4-24~4-27	
5월	일반	지식재산권기초 2차	5-8~5-11	- 지식재산권 기본이론 습득과 실무 적응력 배양 - 일본 지재산 관련 선진기업 및 기관 방문을 통한 IP 국제동향 및 흐름파악 - 분야별 침해사례 특허청구범위해석방법 등 특허권 획득에 필요한 지식 전달
	해외	지식재산통신사_Japan	5-14 ~ 5-19	
	일반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5-21~5-23	
6월	일반	특허명세서작성 SKILL UP 1차	6-12~6-15	-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를 최대화하는 명세서 작성능력 배양 - 특허 침해와 소송에 대한 지식 및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
	일반	특허침해소송전략	6-27~6-29	
7월	일반	변리사를 위한 특허경영	7-11~7-13	- 기술가치평가 및 감정서 작성, 고객 마케팅, 최적의 협상전략 학습 등 특허Management 학습 -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감정서, 경고장 등 지재산 실무에 관련된 문서 작성요령 SKILL UP
	특별	IP DOCUMENT 작성실무	7-23~7-25	
8월	일반	지식재산권기초 3차	8-21~8-24	- 지식재산권 기본이론 습득과 실무 적응력 배양 - 특허 침해와 소송에 대한 프로세스 및 핵심성공요인 습득
	특별	변호사를 위한 특허소송	8-27~9-10	
9월	일반	미국특허전문	9-5~9-07	- 미국특허권의 출원에서 분쟁, 라이선싱까지 미국특허권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 실무에 활용되는 특허정보 검색, 분석, 활용능력 함양
	일반	PM 작성실무	9-19~9-21	
10월	일반	생명공학 및 의약(BT)특허전문	10-8~10-10	- 국내외 생명공학 특유의 특허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실무 능력 배양 - 미국 지재산 관련 선진기업 및 기관 방문을 통한 IP 국제동향 및 흐름파악 -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감정서, 경고장 등 지재산 실무에 관련된 문서 작성요령 SKILL UP
	해외	지식재산통신사_USA	10-11~10-21	
	일반	특허명세서작성 SKILL UP 2차	10-23~10-26	
11월	일반	지식재산권기초 4차	11-6~11-09	- 지식재산권 기본이론 습득과 실무 적응력 배양 - 기업내 특허담당자의 특허관리, 전략 기획수립 등 실무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내용과 사례 중심의 학습
	일반	기업특허관리실무 2차	11-21~11-23	
12월	특별	영문특허명세서작성요령SKILL UP	12-6~2007-3-9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등록 후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를 최대화 하는 영문 명세서작성 요령 습득

지식재산권기초 1차 <특허기초코스>

“ 기업 특허담당자를 위한 첫입문과정 ” 지식재산권 기본이론 습득과 특허관리 중요성 함양

-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회당) : 온라인(2개 선수학습)+오프라인(4일, 총25시간)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07년 3월 6일(화)~3월 9일(금)
- 오프라인 교육기간 : 4일(총 25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멀티미디어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온 라 인 선수학습 :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지재권기초”, “특허법 2006”(일반인과정)
(www.ipacademy.net)

▶ 수 강 료(1인당) : 우리회 회원사 400,000원 ■비회원사 : 480,000원

교육목적

- 최근 지식재산권 확보 및 국제적 보호 동향 인식
-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도 및 실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확립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담당 / 관련부서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시험준비생, 기타 관계자

교육인원

회당 49명

교육형태

비합숙

수료기준

오프라인 교육출석률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간)	소요시간
1일	09:30~10: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0.5
	10:00~13:00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3
	14:00~17:00 디자인보호법	3
2일	10:00~13:00 상표법	3
	14:00~17:00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 및 출원서 작성요령 (해외 출원, PCT국제출원, 상표국제출원 포함)	3
3일	10:00~13:00 특허명세서작성요령 및 청구범위해석	3
	14:00~17:00 특허정보검색요령	3
4일	10:00~12:00 BM특허	2
	13:00~15:00 직무발명	2
	15:00~15:30 강의 강평과 설문 조사	0.5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특허관리실무 1차 <특허향상코스>

“ 기업 특허관리자의 필수과정 ” 특허관리의 전분야 실무지식 습득과 특허 전략 연구

-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 : 온라인(2개 선수학습)+오프라인(3일, 총16시간)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07년 3월 21일(수)~3월 23일(금)
- 오프라인 교육기간 : 3일(총 16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멀티미디어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온 라 인 선수학습 :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 알기쉬운 특허관리 2006 ”, “ 효율적인 특허획득 및 관리전략 (일반인과정) (www.ipacademy.net)

▶ 수 강 료(1인당) : 우리회 회원사 400,000원 ■비회원사 : 480,000원

교육목적

- 기업 경영과 특허전략의 중요성 함양과 이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특허관리 전략 구축방안 학습
- 기업 내 특허관리 수행자의 특허관리, 전략 기획수립 등 특허관리 실무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 실시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담당 / 관련부서 실무자

교육인원

49명

교육형태

비합숙

수료기준

오프라인 교육 출석률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간)	소요시간
1일	09:30~10: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0.5
	10:00~13:00 기업의 연구개발과 연계한 특허관리 전략	3
	13:00~17:00 특허분쟁 대응과 대비전략	3
2일	10:00~13:00 기업의 특허정보 및 PM활용전략	3
	14:00~17:00 기술이전 종합사례연구	3
	- 기술이전 접근방법 중심	
3일	10:00~12:00 국내기업의 특허실무 I	2
	- 대기업 중심으로	
	13:00~15:00 국내기업의 특허실무 II	2
	- 중소기업 중심으로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특허관리실무 2차 <특허향상코스>

“기업 특허관리자의 필수과정” 특허관리의 전문분야 실무지식 습득과 특허 전략 연구

-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 : 온라인(2개 선수학습)+오프라인(3일, 총16시간)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회
 - ▶ 2007년 3월 21일(수)~3월 23일(금)
 - ▶ 2007년 11월 21일(수)~11월 23일(금)
- 오프라인 교육기간 : 3일(총 16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멀티미디어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온 라 인 선수학습 :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알기쉬운 특허관리 2006” “효율적인 특허획득 및 관리전략 (일반인과정) (www.ipacademy.net)

▶ 수 강 료(1인당) : 우리회 회원사 400,000원 ■비회원사 : 480,000원

교육목적

- 기업 경영과 특허전략의 중요성 함양과 이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특허관리 전략 구축방안 학습
- 기업 내 특허관리 수행자의 특허관리, 전략 기획수립 등 특허관리 실무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 실시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담당 / 관련부서 실무자

교육인원

49명

교육형태

비합숙

수료기준

오프라인 교육 출석률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간)	소요시간
1일	09:30~10: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0.5
	10:00~13:00 기업의 연구개발과 연계한 특허관리 전략	3
	13:00~17:00 특허분쟁 대응과 대비전략	3
2일	10:00~13:00 기업의 특허정보 및 PM활용전략	3
	14:00~17:00 기술이전 종합사례연구 - 기술이전 접근방법 중심	3
3일	10:00~12:00 국내기업의 특허실무 I - 대기업 중심으로	2
	13:00~15:00 국내기업의 특허실무 II - 중소기업 중심으로	2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핵심 특허법률사무요원 양성 Step 4 <지재산권특별교육>

“우수 특허법률사무요원 양성과정”-특허법률사무요원의 기본 소양에서, 클레임 해석 능력, 명세서 작성 능력 등 실무 능력 배양을 통한 핵심인재 육성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07년 3월 12일 ~ 4월 2일(매주 월요일)
- 오프라인 교육기간 : 4일(총 16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 수 강 료(1인당) : 200,000원

교육목적

- 특허법률사무요원의 기본 역할 및 자세 이해
- 클레임 해석 능력에서 문서작성 능력까지 실무능력 배양

교육대상

- 특허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특허법률사무요원, 법률관계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 혹은 미취업생

교육인원

60명

교육형태

비합숙

수료기준

오프라인 교육출석률 80% 이상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간)	소요시간
1일	13:30 ~ 14: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0.5
	14:00 ~ 15:30 특허법률사무요원의 역할	1.5
	- 특허법률사무요원의 업무 범위	
	- 특허법률사무요원의 바람직한 인재상	
2일	15:30 ~ 18:00 지적재산권 일반	2.5
	- 지적재산권 분류 및 각종 제도 이해	
	14:00 ~ 16:00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2
3일	- 보정 및 신규사항 추가여부 판단	2
	16:00 ~ 18:00 클레임 해석 능력 SKILL UP	
4일	14:00 ~ 18:00 효율적인 명세서 작성 요령 SKILL UP	4
4일	14:00 ~ 17:00 주요거절 사유 및 주의사항	3
	17:00 ~ 18:00 최적의 특허법률사무요원이 되기 위한 TIP 10	1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7 제네바국제발명 ·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참관단 모집

1. 전시회 개요

- 가. 전시명 : 2007 제네바 국제발명 · 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영 문) : 35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New Techniques and Products
- 나. 주 최 : Salon International Des Invention
- 다. 기 간 : 2007. 4. 18 (수) ~ 4. 22 (일) [5일간]
- 라. 장 소 : Geneva Palexpo, Hall 7

2. 참관기간 : 2007. 4. 14 ~ 4. 20 (예정)

3. 참가대상

특허관련업무종사자, 직무발명자, 기업체부설 연구원, 상품개발 · 기획업무종사자 등 참관 희망자

4. 신청접수

- 가. 신청기간 : 2007. 2. 15 - 3. 22
- 나. 신청방법 : 참가비 입금후 별첨의 신청서 송부
(우편, 팩스, 이메일)
- 다. 신 청 서 : 우리회 홈페이지(www.kipa.org)內 전시
행사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라. 참가비용 : 3,600,000원/1인
 -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일급호텔(2인1실)숙박료,
해외여행자보험, 전용차량요금, 현지가
이드비용, 공항이용료 등 일제비용
[단, 여권수수비용 제외]

※참가비용은 10명 이상 출발시 기준이며, 인원 미달시
변동될수있습니다.

마. 참가비납부

- 은행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308-05-028692 /
예금주: 한국발명진흥회



2007 제네바국제발명 ·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출품자 모집

1. 전시회 개요

- 가. 전시명 : 2007 제네바 국제발명 · 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영 문) : 35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New Techniques and Products
나. 주 최 : Salon International Des Invention
다. 기 간 : 2007. 4. 18 (수) ~ 4. 22 (일) [5일간]
라. 장 소 : Geneva Palexpo, Hall 7

2. 출품참가비

- 가. 직접출품
- 2mx2m부스 개인: 7,000,000원 / 기업: 7,800,000원
 - 1.5m(진열대형태) 부스 개인: 6,800,000원 / 기업: 7,600,000원
- 나. 위탁출품
- 2mx2m부스 개인: 4,600,000원 / 기업: 5,400,000원
 - 1.5m(진열대형태) 부스 개인: 4,400,000원 / 기업: 5,200,000원

3. 출품자 특전

- 가.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전시회 직접경비(부스료, 통역비 등)에 한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을 추천하며 연말에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안분조정하여 출품자에게 지급
- 나. 동 전시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발명품은 우리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특별전시코너에 전시가능(무료)
- 다. 동 전시회에 출품한 발명품에 한하여 우리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전시관內 홍보를 통한 홍보 및 판매지원(무료)
- 라. 발명의 날 포상 신청시 수상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마. 기술이전 희망시 컨설팅 무료지원

3.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007. 2. 15 - 3. 16
- 나. 접 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발명진흥 · 사업화팀 Tel: 02)3459-2796, 2798 / Fax: 02)3459-2819
- 다. 신 청 서 : 우리회 홈페이지(www.kipa.org)內 전시행사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모집요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제9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1 목 적

- 학생들에게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발명을 생활화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인재로 양성
- 학생 발명품의 다양한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발명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발명 창의력 계발 동기 부여

2 주요 행사

- 개관식 : 2007. 8. 1(수) 10:30 COEX 태평양관 1실
- 시상식 : 2007. 8. 1(수) 11:00 COEX 그랜드볼룸
- 전시회 : 2007. 8. 1(수)~8. 5(일), COEX 태평양관 1실
※ 관람시간 : 10:00 ~ 17:00

3 시행 기관

- 주 최 : 특허청
-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특허정보원

4 출품 신청

- 접수기간 : 2007. 3. 2(금)~4. 5(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통합민원 온라인접수
- 문 의 처 : 02)3459-2792, 2797

5 시 상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등 총 193(입선제외)작품 시상
- 단체상 및 교원전(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등) 시상

6 특 전

- 해외연수 참가
 - 학생 : 금상 이상 수상 학생 18명
 - 교사 : 금상 이상 학생의 지도교사 18명 및 교원전 은상 이상 교사 3명
- 학생발명캠프 참가
- 발명특기자로 특례입학 기회부여(자격요강은 각 학교 입학전형에 따름)
- 수상작의 출원 자문 지원
 - 금상 이상 수상작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출원 자문 및 명세서 작성 지원

<2007 대학생발명동아지원사업> 안내

대학생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한 발명인식 제고와 대학발명동아리 육성·지원을 통해 대학생 발명 활동을 촉진시켜 대학생을 산업의 핵심 발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발명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발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사업 기간 : 2007. 2월 ~ 12월

참가 자격

전국에 대학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전국발명동아리연합회 회원 또는 발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 발명가

주 최 : 특허청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대학발명동아리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기간	지원기간	비고
동아리직접지원	• 발명동아리 운영비 지원 • 사업계획서 심사 후 지원	신청3월,7월	3 ~ 11월	
고발명품탐험대지원	• 연구계획서 심사 후 지원 • 국내고발명품탐험을 위한 연구경비 지원	신청 4 ~ 5월	7 ~ 8월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 대학생 발명·아이디어 창출 및 권리화 촉진 발표 경진 • 국무총리상 등 총 42개팀(개인)시상 • 주요내용 - 현장에서 모의과정 PT(시작품) - 심사 및 시상 - 현장발표자(팀) 시작품 제작비 지원 - 사업화를 위한 평가서 제작지원 - 멘토링서비스 - 해외연수	4 ~ 5월	6 ~ 11월	
발명워크숍	• 지재권교육 • 1년활동 사례발표 등	11월	11월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사업화지원팀 서원택 Tel:02-3459-2794 Fax:02-3459-2799
서울 강남 역삼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회장 구지연(숙명여자대학교) 부회장 김민규(동국대학교)

2007년 발명의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발명의 평가수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2007년도 발명의 평가수수료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 특허 등록권리 / 실용신안 심사등록 권리 / 실용신안 선등록 중 유지결정된 권리
-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권리

▶지원자격

-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 해당 등록권리의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아래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상호합의서 첨부)
- ※ 내국인에 한함

▶평가수수료 신청 및 지원

-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절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선정심의회의) ▷ 평가계약/진행/완료 ▷ 평가수수료지원신청(지원확정심의회의) ▷ 보조금 지급
-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건에 대한 지원액 한도는 3천만 원.
-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 2007년 예비결정 신청접수 일정

구분	일 정
제1차	2월21일 ~ 3월7일
제2차	4월23일 ~ 5월4일
제3차	6월25일 ~ 7월6일

※ 기술거래용 평가 예비결정신청은 수시 접수 가능(기술거래 증빙서류 필수 첨부)

▶평가수수료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신청서 접수) 후 출력한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 단, 기술거래용 평가 예비결정신청은 수시 방문제출 및 우편송부.

- 신청 절차 : 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온라인신청 → 평가수수료(예비결정신청서) → 해당 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 신청서(화면인쇄),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마감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제출

※ 예비결정 선정통보 및 주의사항 :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자에 한하여, 예비결정 선정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하며, 예비결정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과 평가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예비결정 선정은 자동 취소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활용

-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 시험·분석을 통한 기술의 우수성 검증과 사업화 타당성을 분석
- 보유기술의 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 등 실시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제품홍보와 기술인증취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발명의 평가기관(기술성평가 4개 기관 / 사업성평가 5개 기관)

- 기술성 평가기관 :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사업성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전화 : 02-3459-2884, 2885, 2890, 2891
팩스 : 02-3459-2899
E-mail : pid@kipa.org
- 평가기관 연락처 및 관련 신청서식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사업안내→특허사업화지원→발명의 평가지원→평가수수료지원사업→자료실





발명꿈나무를 위한 열린 배움의 장 "사이버발명학교" 모집안내



사이버발명학교란?

사이버교육특화이커리어 청소년서비스를 학생가정학습에 위한 학교에서의 재능활동 및 단체수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발명교육에 관심있는 학교나 단체면 어디서 신청가능하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운영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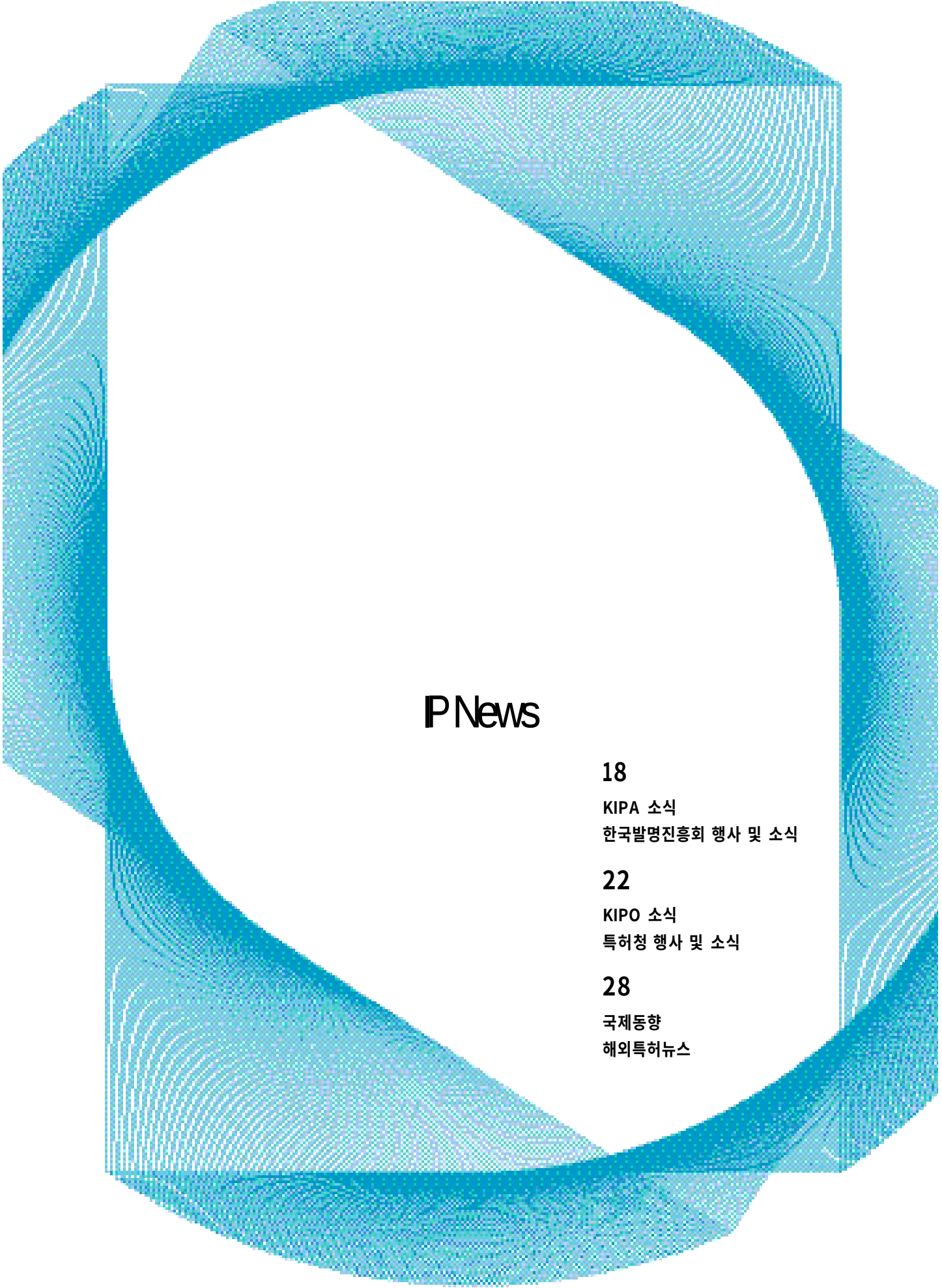


가입특전

학교 및 단체	지도교사	수강학생
• 교내 발명행사 지원 • 학교행사 수상작 및 학교행사 사이트에 공지 • 학교소개 및 행사 홍보	• 사이트 운영 지원	• 교과할 수강 후 등하형 제출시 다양한 포상 • 한국발명진흥회장과 학교장 양자의 수료증발급 (학교의 협의서) •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는 대회 가산점 수감

운영 및 참가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단체가입팀 | 전화 02-3408-7700 | hwg@kipsa.org



IPNews

18

KIPA 소식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22

KIPO 소식
특허청 행사 및 소식

28

국제동향
해외특허뉴스

KIPA 소식

2007 모스크바국제발명 · 투자전시회 참가

우리회와 러시아국제과학기술협회 업무협정 체결



▲ 우리회 박상원 상근부회장(오른쪽)과 러시아국제과학기술협회(Association “ RH ISTC ”) 부사무총장 Vladimir Petryashe(왼쪽)이 업무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러시아교육과학부 장관 Andrey Fursenkov씨(왼쪽)가 우리회 홍보관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다.

우리회는지난 2월5일부터8일까지러시아 모스크바 All - Russian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된「2007 모스크바 국제발명 · 투자전시회」에참가하였다.

러시아국제과학기술협회【Association “ Russian House for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 Association“ RH ISTC”】가주최한이번행사에는 이란 · 말레이시아 · 요르단 · 이스라엘 등 18개국 1,000점이 전시되었다.

마지막날인8일시상식에서우리회박상원상근부회장은 러시아 우수발명가 2명에게 우리회 특별상을수여하였다.

특별히 우리회는 주최본부인 러시아국제과학기술협회(Association“ RH ISTC ”)와업무협정을체결하고, 러시아 교육과학부장관인 Andrey Fursenko씨가우리회 홍보관을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본 업무협정을 통해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는 발명진흥및기술이전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예상된다.

2007 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참가

우리회와 태국국립연구협의회 업무협정 체결

우리회는 지난 2월 2일부터 5일까지 태국 방콕 BITEC Exhibition and Convention Hall에서 열린 「2007 태국 발명가의 날」 행사에 참가하였다.

태국국립연구협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NRCT)]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미국·일본·헝가리·싱가포르(WIPO)·대만이 참가하였고, 첫째날인 2일에는 최고발명가상·최고인기상·학생발명가부문·성인발명가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마지막날인 5일에는 우리회가 주최본부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학생부문과 성인부문에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전시기간(4일) 동안에는 왕과 여왕의 작품, 그리고 태국내외 협회의 수상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6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발명품 4점이 전시되어 한국발명품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우리회는 주최본부인 태국국립연구협의회(NRCT)와 업무협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국제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발명진흥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회 오승택 발명진흥·사업화팀장(오른쪽 4번째)과 태국국립연구협의회(NRCT) 사무총장 Dr. Ahnond(왼쪽 4번째)이 업무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워크숍 성료

총 24개 대학, 58명 참가

워크숍은 지난 2월1일부터 3일까지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07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워크숍」을 개최했다.

총 24개대학, 58명(각동아리회장단및회원)이참가한이번워크숍은연합회임원단간의 친밀도를향상시키고대학발명활동의활성화를위해진행되었다.

올해선출된동아리연합회임원단및지부장은다음과같다.

임원단

구 분	담당 업무	팀 장
총 무	운영실무 총괄	장진호(송실대학교)
기 획 팀	행사 세부사항 기획	이상권(협성대학교)
학 술 팀	특허 및 대회 자료 제공	김진우(영동대학교)
대외홍보팀	소식지 발간 및 대외 홍보자료 배포	이하늘(숙명여자대학교)
정보통신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내부 행사 연락	안정훈(연세대학교)

지부장

구 분	담당 업무	팀 장
각 지역 지부장	수도권 지부장	김시용(서울산업대학교)
	충청권 지부장	고영창(한국정보통신대학교)
	경북권 지부장	최종수(금오공과대학교)
	전라권 지부장	김민기(원광대학교)

▼ 동아리 운영전략 세미나 장면



▼ 전국발명동아리연합회 발전방안 회의 장면





특허기술거래? 『특허기술상설장터』로 문의하세요!

특허기술을 이전하고자 하십니까? 특허기술이 필요하십니까?

- 특허기술거래, 그게 뭐죠?
- 특허기술거래가 어떻게 하나요?
- 좋은 특허기술, 어디 없나요?
- 특허기술거래하고 사업화, 도와주는 곳 어디 없나요?
- 거래 상대방, 어떻게 찾나요?
- 계약서, 어떻게 작성 하나요?
- 거래 협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모두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드립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로 오세요!

주요 기능

▶ 특허기술이전지원

- 이전대상우수특허기술의상설전시
- 특허기술이전자문및상담지원外

▶ 특허기술사업화자문

- 특허기술사업화정보제공및상담지원
-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홍보 · 전시外

설치현황

- ▶ 위치: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
(서울강남구역삼동)

- ▶ 규모: 약 200평

주요 구성

○ 상설전시관 : 이전대상특허기술0점상설전시

- 이전대상특허기술의패널, 리플릿, 시뮬레이션또는평가서제공
- 터치스크린을통한검색및상세자료(명세서, 사업계획서등) 열람

○ 성공사례관 :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패널및제품7점전시

○ 영상관 : 대형TV로특허기술거래및사업화홍보영상물상영

○ 상담실 : 특허기술이전및사업화를위한종합정보제공및상담

○ 자유게시판 : 자유롭게이전희망기술을소개할수있는장소

○ 넷카페 및 휴게실 : 이전특허기술DB 검색/등록및휴게공간

안 내 : 02 - 3459 - 2897, <http://www.ipmart.or.kr>



특허심판, ‘ 6개월 ’ 이내 종결

집중심리제 확대 등 심판 제도 혁신으로 신속한 심판 서비스 제공

특허청은 급증하고 있는 특허심판을 짧은 기간에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관을 대폭 증원하고, 심판 프로세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14개월 소요되던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올해 말에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어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특허분쟁이 빈발하고 그 분쟁에 걸린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특허심판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관을 대폭 증원하고, 심판 프로세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003년 14개월 소요되던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올해 말에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30명의 심판관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24명의 심판관을 증원하여 총 103명의 심판관(심판장 11명 포함)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난해 일부 사건에서 행중인 집중심리제를 당사자계 사건 전체로 확대하고, 답변서·의견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며,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구두로도 통지 가능하게 하는 등 심판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집중심리제는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주장과 증거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쟁점 및 증거를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조기에 심리 종결이 필요한 사건부터 일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집중심리제를 적용받는 사건은 1회의 서면 공방 후 구술 심리를 개최하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고, 구술 심리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판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의 답변서·의견서 제출 기간은 기본 1월에 1월씩 2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일방 당사자가 이것을 악용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지난해 2월 심판 청구된 사건부터는 연장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제출 기간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심리종결 예정 시기 통지 제도는 심판 당사자들에게 심리종결 시기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술 심리시 구두로도 통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당사자들이 심리종결 시기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개도국 지원사업 대폭 확대

WIPO 한국기금사업의 성공적 평가를 바탕으로

특허청은지난 3년간의WIPO 한국기금사업(Korea Funds - in - Trust)에대한 성과를 바탕으로동사업규모를대폭확대할계획이다. 특허청에따르면, 동사업에대한개도국및저개발국의높은평가와우리정부의개도국지원확대방침에발맞추어, 올해하반기부터시작되는4차년도사업의사업비가6억원으로대폭증액될계획이다.

※ WIPO : 지재권을 담당하는 UN 전문기구

WIPO 한국기금은대개도국지원사업수행을위해 2004년에 WIPO와한국특허청간의약정에따라수립된신탁기금으로지금까지 19억원을출연하였으며, 특허청은이를활용하여 지난3년간전세계 41개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전자출원시스템 개발·보급, 국제특허및 국제상표에 관한 교육, 특허정보활용노하우 전수 등다양한 지재권관련협력사업을수행한바있다.

지난해9월개최된WIPO 총회기간중WIPO 사무총장등주요인사들이한국기금사업의 성과에대하여높이평가하였으며, 수단, 모잠비크, 콩고, 나이지리아, 콜롬비아등많은개도국대표들이한국기금사업에 대한감사표시와함께 다른주요선진국들도한국을본받을것을촉구하는등, 한국기금사업을모범적인기금사업으로평가하고있다.

특히, 개도국들은우리나라의급격한경제성장을이루어낸지재권모델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 무엇보다도한국기금이WIPO 기금중유일하게전세계최빈개도국을대상으로 사업을수행하고있다는점을높이평가하고있다.

※ 최빈개도국(LDC) : UN이 지정한 50개의 최저 개발국

특허청은이러한대외적평가를바탕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제4차년도사업부터는사업영역을기존의특허행정정보화, 지재권세미나개최외에도지재권분쟁, 특허맵등으로다양화하고수혜국가를대폭확대하여지재권분야에서우리나라의위상제고를위해적극노력해나갈계획이다.

※ 특허맵 (Patent Map) : 특정 기술분야의 특허출원들을 추출하여 기술발전 집중분야, 기술발전도, 출원동향 등에 관한 분석을 행하는 것

KIPO소식

특허기술정보 검색이 편리해집니다

3개월 이전에
발간된 공보를 검색

▶ 공보 발간 시기 뿐만 아니라, 공보 발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KIPRIS에서 다시 검색을 해야 함

阳



▼ KIPRIS 연계 화면 예



-KIPRIS와 연계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발간한 공보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음

공개/등록/정정공보
검색

○ 공개특허/실용



○ 등록특허/실용



○ 정정공보



-1건의 출원번호에 대한 공보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6번의 입력 과정을 거쳐야 함

阳



-출원번호를 입력하면 공개/등록/정정 공보 이력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음

특허청은과학기술업계인수요를반영하여, 사용자가 특허청홈페이지의특허공보검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개편한다고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편에 따라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에서3개월만이용가능했던 특허정보제공서비스를 24시간365일상시검색할수있게되며, 인터넷공보의검색창에출원번호를입력하면공개·등록·기타공보를한번에검색할수있게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에대한심결문 검색에 있어서도 총 13자리숫자입력과입력과정에서의오류등발명업계의불편이많았던점을개선하여, 일반적으로많이사용하고 있는 문자형 심판번호(예: 95후132)로도 검색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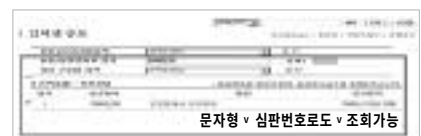
예를 들어, 인터넷 공보 검색창에 숫자형 심판번호인 '10 - 2006 - 0000001'뿐만 아니라 문자형 심판번호를 입력하면공개정보, 등록정보 및변경된권리정보의내용을 동시에 확인할수 있어일반인은 물론, 특허관련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정보를 편리하게검색할수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발명과과학기술의 원천인 특허공보 첫 페이지에핵심정보를집약하여사용자가첨단과학기술을 쉽고빠르게파악할수있도록개편할예정이다.

문자형 심판번호로
검색

- 문자형 심판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결과 없음

阳



- 문자형 심판번호를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함

특허권 유지 · 관리 쉬워진다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등에 대한 찾아가는 전화 서비스 실시

특허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산업재산권의 설정등록, 연차등록료 납부에 대하여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고객콜센터(1544-8080) 전문상담원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등록료 납부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줌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엔젤콜)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가 고객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 이를 공시송달하고 있는데, 특허고객이 통지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제출해야 할 서류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힘들어 취득한 권리가 소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사실에 관한 사전 안내서비스인 엔젤콜을 2005년 1월에 최초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금년부터는 공시송달 이외에 상표등록 갱신 출원, 과오납 수수료 반환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를 추가하여 실시하였고, 이러한 서비스를 다시 설정등록과 연차등록의 납부에 대하여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특허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권리 소멸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기존의 콜센터가 고객으로부터의 상담 전화를 받아 이에 대하여 응답하고 기다리는 수동적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 특허고객콜센터의 엔젤콜은 이러한 수동적인 안내서비스를 탈피하여, 고객이 콜센터를 찾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찾아내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함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허고객 콜센터의 엔젤콜은
고객이 콜센터를 찾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찾아내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함으로써 고객이 필
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허서식 대폭 감축... 손쉬운 특허출원 기대

고 객감동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특허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허청은 민원인이 쉽고 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347개 특허행정서식을 전면 개편하여 55%에 해당하는 190개 서식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 서식 개정에 따른 전자출원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서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유사기능의 서식을 하나로 묶어 공용서식으로 통·폐합하고 내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서식의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는 법령서식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특허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손쉽게 필요한 서식을 선택하여 특허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술력을 갖추고도 특허출원을 주저했던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의 특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잘못 제출된 서식을 처리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식 감축 내역

구 분	서식 수		감출률(%)
	개정 전	개정 후	
합 계	347	157	55%
특허법 시행규칙	195	59	70%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10	4	60%
상표법 시행규칙	50	29	4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7	27	0%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27	19	30%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4	4	0%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27	9	67%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7	6	14%



이젠 지역특산품으로 승부할 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브랜드 전략 컨설팅 등 지원키로

엘 빙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추세에 발맞춰 봉평메일, 원주한지 등 지역유명특산품에 대한 상표권 등록, 지자체 브랜드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시행되어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7개 지역 31개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이어 금년도에는 새로이 17개 지역 특산품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시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을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리적특성과 특산품의 품질특성 그리고 양자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문조사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원하는 것과 작년에 작성한 232개 지자체 브랜드맵을 기초로 8개 지자체 브랜드에 대한 가치평가 및 브랜드 관리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특산품 온라인 체험 학습관 운영을 통해 지역특산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홍보 마케팅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확충으로 심사품질 제고!

특허청은 수준 높은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1천6백만 건에 달하는 국내 · 외 지식재산권 정보를 추가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신규 출원된 특허 ·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새롭고 향상된 기술인지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자료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27개국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는 14,551만 건으로 2005년 12,930만 건에 비하여 1,621만 건 증가하였다. 특허청에서는 방대한 자료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서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프랑스와 독일 자료의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 98만 건, 21만 건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제공 특허청

미국과 호주간 특허조사 및 심사 서비스 협력 확대

올해 3월부터 12개월간 지속될 예정

이번프로젝트기간 동안 IP Australia는 연간 1,200건에 달하는 다양한 기술분야의 PCT 출원을처리하게될 것이다

미 국특허청(USPTO)과 호주특허청(IP Australia)은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의규정에의하여 USPTO에제출된국제특허출원에대한조사및 심사서비스를 IP Australia가수행하는프로젝트를더욱 확대하는 것에 지난1월 24일서로합의하였다.

이번합의는 2005년양 기관 간에 처음으로시작되었던 동프로젝트를 지속 하는것이며, 올해3월부터 12개월간지속될예정이다.

이번 PCT 조사 및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은 심사효율 및 질적 개선에 대한 USPTO의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한편으로는미국 내특허출원 증가에따라늘어나고있는심사대기적체물량을줄이게될것이다. USPTO는지난협력기간동안에IP Australia에의해수행된작업의질과정확성은이번프로젝트를 연장하고그처리물량을확대하기에충분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이번 프로젝트 기간동안 IP Australia는연간 1,200건에달하는 다양한기술분야의 PCT 출원을 처리하게 될것이며 USPTO는 IP Australia의 작업 결과 가질과정확성에서 USPTO의기준을 충족하는지지속적으로확인하게될것이다.

매년USPTO는 거의 45만건의국내출원외에도약5만여건의국제 PCT출원을신청접수받고 있다. IP Australia와의 협력은 USPTO가 현재 진행중인 80만건이상의심사재원확보노력에도움을주게될것이다.

PCT는 135개회원국간의특허출원절차간소화에 관한 국제협약이며 PCT 출원을PCT 지정국어디에서나국내특허출원으로활용할수있다. 국제출원자는1개국또는여러PCT 국가에서의고비용의번역과출원을감행하기전에해당출원이기본적인특허기준을만족하는가를미리결정하도록 도와주는 PCT 조사 및심사보고서를요청하게된다. 한편, USPTO와 IP Australia는PCT 검색과심사수행을공인받은여러특허청중의하나이다.

출처 :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www.uspto.gov)

제공 한정무 차장(정보활용지원팀)

일본 1심법원 직무발명자 공헌도 3% 인정

기술내용 · 상대기업의 실시비율 · 경합기술의 존재 등
종합적으로 고려



원 고는캐논전직사원인箕浦一雄씨(61)로서, LBP는동회사의주력상품이다. 빛의반사로화상이 중복되는결함이 있었지만, 원고가빛의각도를조절하는기술을 개발하여, 동회사가 1981년에일본에서특허를출원했다. 원고는 1998년도우수사장상을수상했지만, 보상으로서는 87만 6,000엔을받는데그쳤다.

첨단기술이집적된LBP 등의전자기기는수천으로부터1만건의특허가사용되어있는것이 많다. 포괄크로스라이센싱계약은이러한경우의상관행으로서정착하고있어, 대표적인특허와기타특허로편성해상대기업에사용을허락하였다. 통상, 기타특허의특허료수입은 명시되는것은아니다.

법원은기술이계약을체결한상대기업의제품에사용되고있음에주목하였다. 캐논의독점이익을 11억 4,600만엔으로 산정하고, 발명자의공헌도는 3%로계산하였다. 기 지불된 87만엔을공제한 3,352만엔의지불을명하였다.

레이저빔프린터(LBP) 등화상의혼란을방지하는기술을개발한캐논의전직사원이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 대가의 일부로서 10억 엔의 지불을요구한 1심판결이 동경지방법원에서열렸다.

기업간에대량의특허를서로허락하는「포괄크로스라이센싱계약」하에서, 개별특허가 낚는이익이확실히아는케이스의대가산정이초점이되었다. 법원은기술내용이나상대기업의실시비율, 경합기술의존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 피고캐논에 3,352만엔의지불을명하였다.

출처 :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1. 30

제공 김유현 과장(지역지식재산팀)

동북아시아 發

국제특허출원 획기적 증가

25.3% 차지하며 급부상,

순위는 미국 · 일본 · 독일 · 대한민국 · 프랑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는 국제특허출원 방식의 중심인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가1978년도

입된이래꾸준히성장해왔으며, 2006년도

는 전년대비 6.4%의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 중 주목할 점은 동북아시아 국가가 PCT 특허출원의 25.3%를 차지하며 급부상했다는 점이며, 순위는미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 프랑스순으로조사되었다.

PCT 업무를총괄하는WIPO 사무차장(Mr.Francis Gurry)은동북아시아국가의PCT 출원비약적으로 급증하였는데, 그배경에는해당국가의성장전략이지식재산권에집중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평가하였다. 그는또한전통적으로미국과유럽이 특허강국이었으나 그주도권이점차동북아로넘어가고있는것은세계특허시스템의지도뿐만아니라국제경제성장의주도권까지바뀔수있음을시사한다고덧붙였다.

대한민국은전년대비26.6% 성장이라는경이적실적을나타내며영국과프랑스를제치고 국제출원4위의자리에등극하였으며, 중국또한56.8% 성장하며스위스와스웨덴을제치고 8위에올랐다.

5만건의국제출원을분석한결과미국은전년대비6.1% 성장, 전체국제출원의 34.1%를 차지하며당당히1위를이어나갔고, 뒤를이어일본이전년대비8.3% 성장, 국제출원 18.5%를이었다. 2003년일본에밀린독일은전년대비5.8% 성장, 국제출원 11.7%를기록했고, 대한민국이26.6% 성장, 국제출원 4.1%를이었으며, 프랑스는2.8% 성장으로근소한차로대한민국에 밀려5위를기록했다. 이하 상위 15위권 국가중에서는이태리가전년대비 16.1% 성장으로 11위를기록했고, 이스라엘이18.3% 성장으로 15위를기록했다.

출처 :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

제공 송상엽 과장대리(정보활용지원팀)

P Column

32

사론

특허기술 개발과 기업경영

36

발명칼럼

21세기 한민족의 키워드는 창의력이다

40

발명칼럼

디자인 전쟁은 특허전쟁

44

사업브리핑

‘07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 운영계획

특허기술 개발과 기업경영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다면
발명 즉시 특허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신제품 개발 무시하면 실패

세계는 이미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치열한 국제 경쟁속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수한 아이디어만을 가능한 한 많이 발굴, 육성하여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이제 자본과 인력만으로 기업이 발전하던 시대는 지났다. 자본과 인력보다는 산업재산권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앞선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직무발명제도를 채택하여 전사원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을 때 계속적인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기술개발에 소홀한 기업은 퇴보하거나 무너진다.

포드자동차가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값싸고 견고한 차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앞으로 10년간은 이 검은 T형 포드만을 생산하기로 한다. 고 발표한 헨리 포드는, 그때까지 1대의 조립에 12시간 28분 걸리던 것을 컨베이어 시스템의 창안으로 1시간 30분이라는 놀라운 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이 T형 포드는 무려 1천 5백만 대나 만들어졌으며, 그 당시 자동차업계에서는 ‘싸고 강하며 스피드 있는 차’라는 점에서 어떤 차도 이에 따르지 못하였다.



김 연 환

- 중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특허청 상표, 디자인분야 심사관, 소송수행관, 항고심판관 보좌관, 심판관 역임
- 특허사업화지원 및 국유특허관리 사무관, 총괄서기관, 법무담당사무관 등 역임
- 배재대 법무대학원 지재권분야 강사 및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역임

그러나 포드와 같은 사람도 한가지 모르고 지났던 일이 있었다. 바로 ‘인간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T형 포드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실용적이라 해도 똑같은 것을 10년씩이나 계속 사용한다면 싫증이 나게 마련인 것이다.

바로 이점에 재빠르게 눈을 돌린 GM은 그야말로 대 성공을 거두었다.

GM은 ‘이제 대중은 포드에 싫증이 났다. 비싸더라도 새롭고 보기 좋은 차를 만들어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제품개발에 나섰다. ‘시보레’였다.

새로운 것에 굶주리던 사람들은 시보레 쪽으로 몰려들었다. 포드의 매상은 급속도로 떨어졌다.

당시 최대기업이었던 포드였지만, 이런 실수 하나로 해서 결국 파산 일보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포

발명에 있어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패배자와 승리자만 있는 것이다. 아차상이나 애석상 따위를 바라는 사람은 평생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특허출원 서류를 들고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뛰어라.

천당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는 바로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포드자동차가 뒷걸음질을 하는 동안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캐디락, 크라이슬러, 패카아드 등을 속속 시장에 선보여 하나같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손자인 포드 2세가 사장에 취임했고, 링컨과 같은 신제품을 속속 시장에 선보여 또다시 옛 명성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아이디어와 산업재산권

기업성장을 위한 요소로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아이디어 개발과, 개발된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여 나가는 것이다.

미국의 제록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록스는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였고, 매출도 미미했다. 그런데 1963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수위로 뛰어 올랐다. 또 1966년에는 4억불(당시 금액)이 넘는 매출액으로서 시장 점유율이 60%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으로 1967년에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과 이익이 각각 3만불과 4천불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거대기업인 ICI와 비교하면 매출면에서 2배, 이익면에서는 3배에 이르는 실적이었다. 참고로 1967년 당시 미국의 국민 1인당 GNP를 살펴보면 4천불이다.

그런데 제록스의 이 같은 급격한 성장과 높은 이익 창출의 비결은 바로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산업재산권의 확보에 있었다. 당시 제록스 복사기는 그 본체에만

도 2백건이 넘는 산업재산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그 주변 기술과 부품의 산업재산권까지 합하여 3백건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로 뚝뚝 뭉쳐진 발명품의 대명사였다.

이 때문에 컴퓨터의 세계 최정상 기업인 IBM이 그 당시 4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하여 복사기를 개발했으나 발표와 동시에 제록스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피소되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현장기술의 위력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아이디어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최근 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방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에서 오는 것이다.

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과 노임 등에서 비교우위를 찾기 힘들게 된 이상 아이디어와 신기술 개발에서의 비교우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실정까지 감안하여 특히 경영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이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분야와 품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2년이면 싫증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면 그 회

사는 무너진다고들 말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기술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술개발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연구소는 자체 연구 못지않게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

문제해결,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 값진 발명이기 때문이다.

현장기술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이는 오늘의 발명사가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1966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오토바이 경주대회에서 1위에서 5위까지를 휩쓸며 오토바이 신화를 창조한 혼다의 오토바이 개량발명도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했을 따름이었다.

직무발명의 활성화

이와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현장기술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장 기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소위 직무발명제도가 그것이다.

직무발명제도는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 ▲국제경쟁력 제고 등 네 가지 요인들에 의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독점배타적권리확보를 통한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는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을 경우 기업은 무상으로 특허받은 기술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타인의 기술모방이 배제되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로 인해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기술혁신이란 창의적인 기업가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의 결과를 실용화시키는 과정으로 종업원에게는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발명을 촉진시키고, 기업은 개발된 기술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게 된다.



직무발명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종업원에게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인센티브 제공은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며, 기업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기술축적 및 기술의 상호 공유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지속적인 발명과 기술혁신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세계 첨단기술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특허출원 순위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이미 세계 지식재산 4강에 진입하였다.

이제, 우리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4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개발된 기술들은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되고 사업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허출원은 최대한 서둘러야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발명가가 쏟는 열정과 땀방울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때로는 인생의 반평생을 한 가지 과제에 바치거나, 전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발명품에 대한 일정한 권리는 발명가 자신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십여년의 긴 시간과 수십 억이라는 막대한 투

자를 거쳐 완성된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쉽게 도용하도록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런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는데 누가 발 벗고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척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다면, 발명즉시특허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특허출원을 거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 아이디어를 완성한 후에는 빨리 빨리 움직이는 것이 상책이다. 발명의 과정에는 끈기를 지닌 마라톤 선수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특허출원의 과정에선 칼 루이스와 비슷한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나만이 간직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또한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연히 연구과제가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차 방심하는 사이, 오랜 세월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실제로 발명사의 숨겨진 일화에는 특허출원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19세기 초반에 갈고리를 발명한 한 인부는 특허출원을 위해 도시로 가는 도중에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

그는 낯선 지방에서만난 사람과 술친구를 하다가 별 생각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랑해버렸다. 하루만 지나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그가 잠든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낯선 사내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물론 사내의 품에는 그가 소중히 지키던 특허출원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의 특허출원 서류가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도시로 향했으나 헛일이었다. 그가 특허청에 도착했을 땐, 이미 누군가에 의해 특허출원이 끝난 상태였다.

하룻밤의 실수로 어이없게도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날려버린 것이다.

유명한 독일의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한다.

19세기 후반 독일은 유럽에 있어서 한낱 농업국에 지나지 않았다. 실업자는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한 남루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애니링소다회사를 찾아와 사장과 의 면담을 청했다.

“사장님, 이 회사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해결할 사람은 저뿐입니다.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곤경이라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요?”

사장은 버럭 화를 냈다.

“사장님, 지금 이 회사는 극비리에 합성염료 생산을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영국의 빠킹 박사가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하여 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회사가 영국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좋소. 당신을 채용하겠소. 방법을 말해 보시오.”

“간단합니다. 그들보다 먼저 영국의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겁니다.”

사장은 즉석에서 중년 남자를 사원으로 채용하고, 그로 하여금 특허를 출원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영국 특허청으로부터 제1936호의 특허권을 받았다.

그 후 기록에 따르면 이 독일의 중년 남자의 출원이 영국측 빠킹 박사의 출원보다 하루가 빠른 것이었다.

영국 제일의 박사였지만 단 하루가 늦어짐으로 기술은 일찍 개발해 놓고도 특허권을 독일의 중년 남자에게 빼앗긴 것이다. 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이 일은 세계 발명사상 가장 유명한 “특허가 기술을 지배한 특허전쟁”의 기록에 남은 뒷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사례가 수없이 많다.

발명에 있어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패배자와 승리자만 있는 것이다. 아차상이나 애석상 따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평생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특허출원 서류를 들고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뛰어라. 천당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는 바로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발 • 특 2007. 3

21세기 한민족의 키워드는 창의력이다

두바이의 실험 모델은 향후 세계곡곡에서 벌어질 일이 될 것이다. 초고층 건축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하면 우리가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조선 항공우주 로봇 등 향후 유망 업종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무궁 무진하다.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이 우수한 민족의 두뇌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골드만삭스사가 예측한 GDP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박진준

삼성전자 반도체 지적자산팀 메모리 IP출원 그룹/차장(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3년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출원 및 라이선스 16년
특허법 및 창의력 개발 사내외 강사 10년
KAIST EMDEC 신제품 개발기법 출강 1년
MBC TV 여성시대 테마특강 출연 1회
CBS 라디오 상상경제 특강 출연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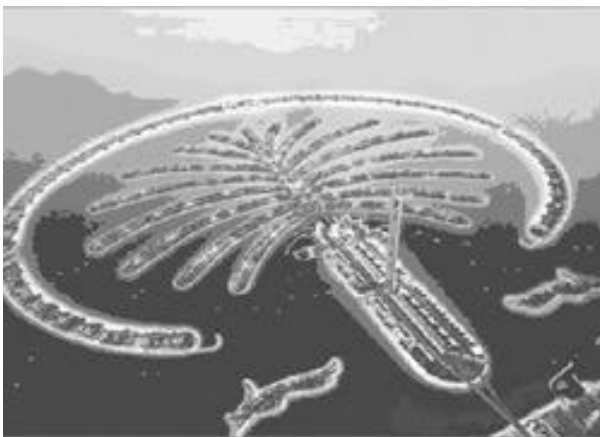
금융구조를 개혁 투기자본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고 의무적으로 벤처나 자유 발명자에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86 세대의 사고는 버리고 정신적인 창의적인 열정으로 변화시켜 보다 창조적인 국민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경제 초강대국

세계 경제를 정확하게 예측, 투자를 하는 골드만삭스가 2050년 한국의 GDP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최근 세계 장기 보고서에서 예측했다.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을 포함시켜 BRICKs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유명한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가 2030년대 우리의 GNP가 2배 이상으로 성장 경제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최근 이야기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내다보는 외국의 투자기관이나 석학들의 예측이 우리 사회 정치 적 현실감과 약간 괴리감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만 아니어서 위안이 간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두바이는 상상력을 현실로 옮긴 실험 모델

두바이항에서 8킬로 떨어져 있는 해안가에만들어지고 있는 야자수를 형상화한 팜아일랜드이다. 인공섬뿐만 아니라 돛단배를 연상시킨 7성급 호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막의 꽃을 형상화한 버즈 두바이 빌딩 등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한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곳이 두바이이다. 조그만 어촌이 21세기 세계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석유로 벌어들인 자본과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아랍에미레이트를 걱정한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의 리더십과 인간의 창의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지금 많은 정치가 경영인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현장을 방문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긍심도 함께 느껴야 할 것이다. 민족이 성장하려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고민을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민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삼박자 중 두바이 현장에서 3일 만에 한층이 올라가고 있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버즈 두바이 건



1

1.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인공섬 팜파이

물이 우리의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자긍심이요, 우리도 자본과 지도자의 비전이 있다면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을 미래 먼 곳으로 끄는 지도자의 비전과 우리의 창의력이 결합되

면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두바이를 능가한 꿈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빨리빨리라는 근시안적인 안목보다는 보다 멀리 대승적 시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창의력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했다

중국은 나라명군탕왕은 세숫대야에 “苟日新日新又日新”(진실로 새로워지려거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을 써 놓고 세수할 때마다 되새기며 자신을 반성하며 새로움을 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신들에게 그렇게 술선수범하면서 실천하도록 하였다. 수천년 전부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이념은 역사에 나타나 있다.

요사이 시청률 50%를 넘어 국민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는 “주몽”에서 주몽군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모팔모가 새롭게 만들어낸 고급 탄소강으로 만든 창검과 갑옷으로 부여군이 한나라 군대가 사용하는 창검이나 갑옷보다 훨씬 가볍고 강하여 승승장구하는 숨은 공신이 되고 있다. 고대국가 시기에 그렇게 첨단 고급 탄소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형성시기부터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지도이념이 역사 속에 숨어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재계 제1 총수가 “창조경영”이란 화두를 던졌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통령에 버금가기 때문에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창조경영에 관한 특집 기사를 비일비재하게 쓰고 있다. 지금은 창의력에 관한 서적이나 창조경영 서적들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연구되어 발간된 서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연구원들을 만들까 고민하다 “창의력 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 창의력 교육을 시작했었다. 그 동안 10년 넘게 창의력 교육을 하면서 교육 서두에 창의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모두 무관심하여 상당한 많은 시간을 끌면서 설명을 해야 했는데, 최근 교육을 하면서 회장님의 지시 사항이 “창조 경영입니다”라고 시작하자 5초 안에 모두 집중되어 교육효과 만족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 전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리더는 미래를 보는 통찰력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먼저 통감 많은 사람을 일깨워야 한다. 처음은 일반 사람들이 그 동안의 생활방식 때문에 심리적 저항감이 있다할지라도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도태되거나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시켜 끌고 가야 한다. 세계 모든 역사는 비옥한 환경에서 안주했던 민족이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라 비록 자연 조건은 좋지 않더라도 도전하고 혁신을 통해서 진화한 민족만이 종족을 유지하고 세계사를 지배했다. 창조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평의 문을 연 사람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

21세기는 기술 정보를 이용한 창의와 혁신의 패러다임

세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잘 팔리고 있는 제품군이 MP3이다. 그중 세계 시장을 석권한 애플의 아이팟은 소비자의 욕구를 읽고 고객의 구미에 맞는 기능과 디자인으로 MP3 후발업체이지만 단번에 세계를 평정했다. 회사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요시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다. 20 세기는 잭웰치 같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화가 성공했다면 21세기는 감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영이 성공할 것이다. 아이팟 MP3에 이어 휴대폰 기능이 있는 아이폰을 개발 완료 발표했다. 기존의 휴대폰 개념을 뛰어넘는 자판이 없는 터치식 스크린, 디자인 등 사용자 편의주의로 제품을 개발, 휴대폰 회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스티브 잡스 같다는 찬사를 보내며 시장에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다. 애플이라는 브랜드와 거대한 유통망 디자인과 기술력 등이 합하여만 들어내는 성공 신화 뒤엔 인간의 창의력이 숨어 있었다.

21세기는 한민족의 시대

한류라는 커다란 흐름이 동남아에서 발원하여 세계 방방곡곡을 향해 힘차게 요동을 치고 있다. 대중 가수,

드라마 등 문화예술품을 비롯하여 여자 골프,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케이팅을 비롯한 스포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반도체, LCD TV, 무선통신기술, 조선,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그 동안 숨어있던 기량들이 돌출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무엇일까?

최근 영국 얼스터 대학의 리처드 린 교수는 “지능의 인종적 차이: 진화론적 분석”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 아시아인들의 평균 IQ가 10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IQ의 우월성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과 함께 겨울 평균 온도와 IQ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7도 근방이 높은 IQ의 최적 조건이고 그 이상이나 이하는 IQ가 낮게 나온다고 했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지금 세계 시장을 이끄는 축이 동아시아에 있는 현실을 보면 그렇게 빛나간 연구는 아닌 것 같다. IQ와 창의력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IQ가 높으면 창의력이 높다는 연구는 정설은 아니지만 평균 IQ가 높다는 것은 지능적인 능력이 높다는 측면에서 21세기 지식재산의 시대 정신과 부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궁과 여자 골프 쇼트트랙에서 세계적인 아성을 구축했다. 우리 민족은 뇌의 이마 위 부분이 발달이 되어서 거리 및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데 양궁과 골프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과 무관하지는 않다. 쇼트트랙은 곡선 활주가 많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이 우람하지 않아도 되어 체형적으로 우리에게 맞고 우리가 개발한 쇼트트랙 신발은 앞부분보다 뒷부분 높이가 높아서 곡선 활주 시 안정적이며 스피드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스포츠 과학이 만들어낸 결과다.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머리가 뒷받침이 되었을 때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는 머리를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족의 평균 IQ가 높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21세기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앞에서 언급했던 골드만삭스와 자크 아탈리의

대한민국 미래 예측에 관해 생각해보자. 왜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예측했을까? 엉뚱한 정보를 터뜨려 투자차익을 얻기 위한 단기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20년 이후를 예측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다. 투자회사와 미래를 예측하는 석학으로서 당연한 자기의 임무를 했다고 본다. 미래를 보는 방법은 과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재의 상황을 인식 같은 기율기상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5천 년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민족의 역량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근대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현재의 상황을 만든 저력과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을 미래에 펼쳐질 방향과 접목 예측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역량과 미래 다가올 시대를 연결, 2030년 이후의 우리의 모습과 해야 할 일들로 결론을 내보겠다.

2030년 이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전달,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항이다. 유비쿼터스를 이끌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면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회사나 사람들이라면 한국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상을 높게 평가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을 한층 더 높이 발전시키고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은 계속 연장되고 암을 비롯한 불치병들이 정복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모두가 염원하고 실현 가능한 사회가 될 거라고 믿는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면 생명공학이 앞서가야 하는데 이 분야 또한 한국이 선두주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미래를 높이 평가하는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명공학 연구 자체가 다음 세대의 영향 등을 피드백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전자제품을 만들어 필드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인내와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격려하여 우리 민족의 먹거리 중 BT가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

이다.

두바이의 실험 모델은 향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질 일이 될 것이다. 초고층 건축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하면 우리가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조선 항공우주 로봇 등 향후 유망업종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이 우수한 민족의 두뇌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골드만삭스사가 예측한 GDP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거품에 의한 땅값이 폭등하면 연구소 공장을 짓는데 기초 비용이 많이 들어 고용창출이 안 된다. 청년실업문제 등 한국에 꿈이 없어서 신생아를 낳지 않는 악순환과 연결되면 향후 미래는 장미빛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이 먹구름만 끼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금융구조를 개혁 투기자본으로 자금이 풀리는 것을 막고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벤처나 자유 발명자에게 배분, 쉽게 기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흐름을 인식, 386 세대의 육체적 투쟁적인 사고는 버리고 정신적인 창의적인 열정으로 변화시켜 보다 창조적인 국민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발 • 특 2007. 3

디자인전쟁은 특허전쟁



강충인 발명칼럼리스트

TQ창의력교육개발원장
TQ가감승제변기법 창시자
중소기업연수원 전문위원
(사)제안협회 수석컨설턴트

발명가는 발명에 전념하고 기업은 발명품을 상품화시키고 국가는 세계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하면서 신기술 개발, 신상품개발, 신소재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금융 지원, 정보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제공하는 통합적 특허 관리시스템구축에 앞장설 때, 미래는 한국이 이끌어 가는 지구촌이 될 것이다.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는“ Design, or resign”이라는 말장난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디자인이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마거릿 대처 총리의 말은 세계지도자들의 국가 경쟁력 창출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 경영(특허관리경영)이 국가의 특허 관리 전략으로 부상되었다.

특허관리는 시간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허란 시간적 전쟁이다. 아무리 좋은 특허도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못하면 특허로 생명력을 창출하지 못한다. 특허권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상품으로 생명력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전 월호에서 강조하였듯이 100년 전에컴퓨터가나왔다면과연지금처럼모든부분에서가치를인정받았을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을 제시한 바와 같이, 특허는 시대적 시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치가 달라진다. 이는 특허가 개발보다 전략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허권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지만, 특허의 첫 번째 경쟁력 요소

는, 보다 중요한 것은 특허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의한 전략적 구상이고 전략적 관리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개발보다 특허관리가 국가의 전략적 관리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마거릿 대처 총리가 주장하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관리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21세기의 국가 선별기준에서 국가 경쟁력 기준은 특허 관리 능력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제 특허는 개인적 발명품에서 국가적 발명품으로 강조되고 있다. 개인은 발명을 하지만 국가는 특허를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은 하나의 특허를 발명하지만 국가는 다양한 특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과거의 특허는 개발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국가적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특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략적 국가 특허 관리 능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 LG 등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가 운영의 총체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관리하여 무엇을 지원해야 하며 무엇을 어디에 홍보하고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전략이 국가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국가 운영 전략이 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특허를 개발하고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특허권의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정책 지원과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때 국가 경쟁력도 상승된다.

특허전쟁은 특허국이 관리해야 한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오늘날 영국은 국가 경쟁력에서 밀려나 있지만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문화혁명의 기술국가 명성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동안 영국은 기술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상품 경쟁력에서 신흥 국가와 경쟁력을 상실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입장에서 마거릿 대처 총리가 영국의 미래를 위해 “Design, or resign”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강조하게 된 원인이라고 본다.

특허청을 특허부로 승격시키는 것이 특허국의 지름길이다. 한국의 특허 전략은 특허권 창출에 국한되어 왔다고 본다. 특허 출원 4위라는 명성은 국가가 만든 전략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골육책에서 창출된 것이다. 영국 총리가 영국의 미래를 위해 디자인을 강조하였듯이 한국은 디자인을 통한 특허 전략을 강조할 때다.

지금의 특허청을 승격시켜 특허국으로 남보다 앞서가는 국가 정책이 필요한 때다. 특허는 남보다 한 발 앞장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고 경쟁력이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특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라는 것이다.

국가의 발전은 개인과 기업 등이 동참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연구소들이 연구한 자료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국가 정책 운영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의 특허청을 특허부로 승격해야 할 것이다. 특허와 관련된 모든 기술 관리, 개발 관리, 전략적 상품 개발 관리, 각종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 관리, 세계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기술, 신상품, 신소재 개발 및 판매망 구축 등의 총괄적인 관리가 하나로 진행되어야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시대를 시간 경쟁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의하여 전략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해도 시간적 공격 전략에서 실패한다면 특허권의 경쟁력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특허전쟁 시대

모든 국가가 보이지 않는 특허 전쟁으로 이념적 전쟁 시대에서 기술과 상품의 특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제의 적대 국가가 오늘의 우방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국가 원수간의 공존적 회의 하나로 적이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는 상생 전략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이나 신상품 경쟁 등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는 어제의 적과도 동침해야만 한다.

특히 기술이 없으면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과 연합하는 시대에서 특허전쟁은 국경도 없고 총성도 없지만 과거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 전쟁이다. 상품기술경쟁에서 뒤떨어지면 6.25 때 사망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경쟁, 기술경쟁, 가격경쟁 등에서 밀려나 죽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허 전쟁은 국경 없는 전쟁,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터다. 한번 기술력에 밀리면 100년의 전통을 가진 기업도 하루아침에 도산하고 그 곳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전쟁이다.

세계가 특허 전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부시는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일이라면 지역이나 이념, 문화적 갈등까지도 무시하고 국가를 위해 지구촌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다. 어제의 적과도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일이라면 협상을 하며 기업인의 입장에서 협상한다.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한 국가를 전쟁터로 몰고 가는 전략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 사태다.

오늘날 한반도의 입장도 미국의 이익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한국이 개발하는 첨단 기술도 미국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 무차별하게 공격한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건 미국의 특허관리 전략에 미국 기업에게 해가 되고 미국인들에게 해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전략이다. 이유는 특허전쟁은 시간전쟁이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발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국의 마가렛 총리가 “Design, or resign”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미국적 전략과 영국의 전략이 세계 선진국가의 전략으로 부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허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는 효율적인 특허 관리능력에 달려 있다. 다양한 특허를 개발하고 특허를 상품화시키고 특허권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전략적 특허관리 능력을 구축해야 할 때다. 개개인의 특허권과 기업의 특허권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의하여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

기술거래, 특허거래를 위한 인터넷 활용은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한국의 인터넷환경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아이디어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허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은 특허청을 특허부로 승격함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관리 통합시스템은 국가의 모든 전략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특허는 모든 사회 분야의 경쟁력을 창출시키는 비결이고 방법이 되었다. 보이는 특허권에서 보이지 않는 BM 특허권의 확대는 모든 사회 분야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창출시키는 비결이면서 개발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범세계적으로 특허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



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관리통합시스템의 개발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시스템이다.

특허권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인적 구축까지 물질, 인적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특허관리통합시스템이라 할 것이다.

어떤 국가가 특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가에 의하여 특허 전쟁의 고지 확보가 결정된다. 특허권의 확보와 동시에 상품가치, 수익창출을 위한 특허관리 시스템 구축은 어느 개인이나 기업, 부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특허는 개발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수집, 분석능력은 한계가 있다. 기밀을 유지하는 국가의 경쟁력창출을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최초의 기술을 개발하고도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거나 상품을 만들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으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기술은 사장되고 만다.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특허권을 국가는 정책으로 지원하고 개발하여 세계적인 기술, 세계적인 상품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기득권, 부서별 기득권 등의 기존의 모든 제도와 권위에 도전하고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제도와 권위를 개선하고 혁신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때다.

한국의 정치는 지역별, 부서별 장해요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결정짓는 제도에서는 특허관리통합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상주의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특허에서만 모든 제도와 권위를 초월해만 하는 이유는 특허는 제도와 권위를 초월하여 모든 분야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허가 개인이나 기업만의 특허이던 시대는 지났다
국가 경쟁력이 특허로 결정되는 시대에서 특허는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

력을 창출하기 위한 특허권이 아니라 국가의 사활을 걸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허를 개발하고 발굴하며 육성하는 특허권 개발 전략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허통합관리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성공하면 국가는 저절로 경쟁력을 창출한다. 특허관리통합시스템은 특허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을 육성하고 기업을 발굴하여 국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개인이나 기업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본다. 이제는 특허청이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제도와 함께 통합적 개념으로 이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허심사 최단시간내 결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은 혁신적 특허관리 시스템의 유형이다.

특허청의 인터넷 활용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많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특히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거나 특허에 인생을 걸고 뛰고 있는 수많은 발명가와 기업인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를 상품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된다면 특허관리의 선진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다.

발명가는 발명에 전념하고 기업은 발명품을 상품화시키고 국가는 세계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하면서 신기술개발, 신상품개발, 신소재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금융 지원, 정보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제공하는 통합적 특허관리시스템구축에 앞장설 때, 미래는 한국이 이끌어 가는 지구촌이 될 것이다. 작지만 큰 나라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있다면 전 국민이 동참하는 특허관리통합시스템구축일 것이다.

발 • 특2007. 2

‘07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 운영계획



특허청산업재산정책본부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박 주 연**

특허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의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대학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용역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과 ‘지재권 창출촉진’ 사업을 2006년도에 통합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종합 지원 인프라 구축(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둘째, 지재권 인식제고 및 제도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지역대학 지재권 창출지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은 지난해에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사업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05년 2,113백만원→ 06년 7,056백만원→ 07년 7,500백만원),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기존의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외에 지역특산품 생산자 및 가공자 단체, 지역대학에까지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는 ‘0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 운영실적과 평가를 토대로 올해에 진행될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 지재권 창출의 전진기지로 기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자료 열람 위주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지역민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기능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지역 발명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발명요리경진대회(영남권), 도전! 발명골든벨(충청권), 톡톡!! 인벤션 페스티벌(호남권), 5·19 발명 미션 걷기대회(수도권) 등 5개 권역별로 지역 발명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발명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지역 브랜드가치제고, 지역대학 지재권 창출지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등 신규사업을 발굴·수행함으로써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운영 측면에서 보면, 센터 간 발전적 경쟁체제가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 06년도 지식재산창출사업 운영실적 및 평가

사 업 명	실 적	비 고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31개 센터 운영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등 특허종합서비스 제공 167,978건 -권역별 지역발명의 달 행사 개최(도전! 발명골든벨 등) -지역 발명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협력사업 수행 (에디슨 발명특허교실 운영 등)	※ 05년 대비 18% 증가
지역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 16개 광역센터에서 운영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 지역발명의 달 행사 개최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분기별 1회 간담회 개최)	신규
지재권 인식제고 및 제도홍보	○ 16개 광역지자체와 지재권 세미나 공동개최 ○ 40개 업종단체 설명회 개최	
지역브랜드가치 제고	○ 17개 지역 31개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서산6쪽마늘 등) ○ 지자체 브랜드 맵(232개 지자체) 작성 및 컨설팅(2개 지자체 시범 실시) ○ KBS 특별기획 “지역재발견! 명품시대” 제작·방영	신규
지역대학 지재권 창출지원	○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대학 지재권 관리규정 정비, 세미나 개최 등 대학 지재권 관리능력 및 인식제고 -대학보유 특허기술 이전(126건, 46억)	신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8개 지자체와 매칭펀드 조성을 통해 공동사업 수행 -특허정보 및 사업화 컨설팅 평균 371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10개 과제) 및 개별기업 PM (60개) 작성보급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시작품 제작 지원 등 수행	※05년 -2개 지자체와 시범사업 수행

‘ 05년부터진행해 온전년도사업실적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우수 센터 및 지식컨설팅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를 기초로 한 사업비 및 인건비의 차등 지원을 통해 센터 운영에 있어 성과주의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폭 확대된 사업예산 및 신규사업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지역 유관기관 및 청 내 발명진흥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 백화점식 사업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성 등 개선할 점도 몇 가지 있었다.

또한, 중장기적인관점에서센터장및지식컨설팅트의지속적인전문성제고가필요하다는외부기관의 지적도 있었다. 센터장의 경우, 센터 운영기관의 중간책임자로서관리능력 뿐만아니라지재권분야의 전문성

과특수성을고려하여 사업운영에필요한전문지식 구비가 필요하며, 지식컨설팅트의 경우에도 특허종합서비스제공의질을높이는데에지식재산에대한전문지식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소양이라 할 것이다.

‘ 07년도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운영계획

기본방향

올해 사업운영의 기본방향은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존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역지식재산센터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고품질의 지재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효율적인사업운영체계의 구축을위해 지자체등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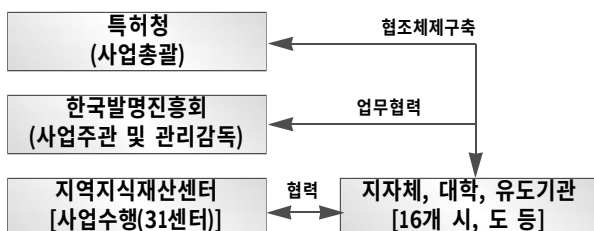
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에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경우, 지식재산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라는 인식하에 관련부서나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지재권 관련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조례에 관련업무를 자치사무로 반영함으로써 지식자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진흥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특허청 내에서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구심점으로 하여 타 발명진흥사업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여 신청접수, 사전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특허컨설턴트 및 어드바이저에게 IP-MART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다.

또한, ‘Star Company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집중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업운영체계등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은 지난해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발명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사업운영은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래 표와 같이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지자체, 대학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워크숍 공동개최, 사업 운영위원회 공동구성, 지역별 전문가 BANK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운영기관별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지식컨설턴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운 영 기 관	지역센터(전담인원)	비 고
한국발명진흥회 지회	부산남부(4), 광주(4), 춘천(3)	발명장려관 포함
지역상공회의소	대구(2), 인천(2), 울산(2), 수원(2) 청주(2), 천안(2), 구미(1), 포항(1) 마산(1), 전주(2), 순천(2), 제주(2) 창원(2), 진주(2), 강릉(1), 충주(1) 목포(2), 안동(1), 서산(2), 태백(1)	
테크노파크, 산업진흥재단	부산서부(2), 경기안산(2) 경기부천(1)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	부평(2)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원주(2), 대전북부(2)	
대 학	대전대학교(1), 영동대학교(1)	
소 계	31센터 57명	

한편,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분포현황은 아래와 같다. 특허청에서는 향후 지역의 지재권 수요와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센터 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호에 계속
발 • 특2007. 3



Report

48

국제특허분쟁지도(미국편)
미국의 특허분쟁에 대한 판례

52

분쟁대비 특허정보분석보고서
기계, 금속, 건설, 정보, 통신분야

60

특허확대경
특허분쟁 사례 - 특허법원 판결

64

회원기업 탐방
햇님뜸 보성사

66

특허기술평가결과 활용사례
특허기술 제값받기 - (주)드림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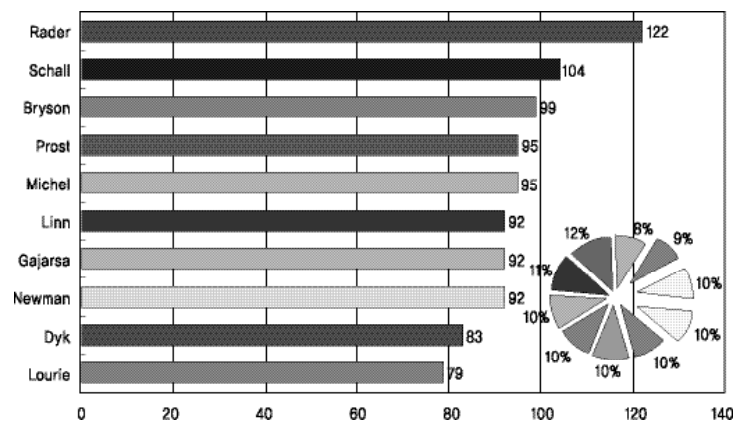
최근 미국 특허분쟁현황

판사별 분쟁현황

판사별 전체현황

그림 19는판사별전체현황으로서, CAFC의판사별담당사건을나타낸 것이다.

판사별현황을살펴보면, Rader 판사가가장많은 122건의분쟁사건을 담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외에도Schall, Bryson, Prost, Michel, Linn, GAjarsa, Newman 등의 상위판사들은 전체 376건의사건중 각각 90건 이상의사건을담당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9> 판사별 전체현황

주요 판사의 산업분야별 현황

그림 20은판사별현황을산업분야별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 대부분의상위판사들이산업전분야에대한사건을담당하는것으로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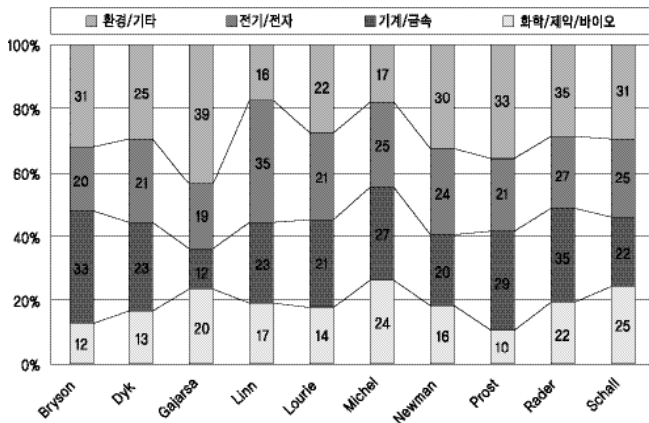
[연재 일정 안내] 미국(최근 CAFC 특허분쟁중심)편

연 재	목 차
2007. 1월호	제1장 개요 추진배경, 분석대상, 보고서구성
2007. 2월호	제2장 최근미국특허분쟁현황 (1) 1. 일반현황 2. ISSUE별분쟁현황 3. 산업분야별/ 기술별분쟁현황
2007. 3월호	제2장 최근미국특허분쟁현황 (2) 4. 판사별분쟁현황 5. 원· 피고별분쟁현황
2007. 4월호	제2장 최근미국특허분쟁현황 (3) 6. 지방법원(심법원)별분쟁현황 7. 주요대리인별분쟁현황 8. 소결
2007. 5월호	제3장 Issue별 판례심층분석 (1) 1. 특허성 (Patentability) 2. 청구범위해석(Claim Construction)
2007. 6월호	제3장 Issue별 판례심층분석 (2) 3.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4. Equitable Defense, 구제수단및기타

※ 상기 내용은 국제특허분쟁지도 보고서의 요약본이며, 상세내용은 분쟁대비특허정보넷 (<http://www.patentmap.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났고,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한 Rader 판사의 경우 4개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비교적 균등한 건수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판사가 이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Gajarsa 판사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화학/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였고, Linn 판사는 기계/금속 분야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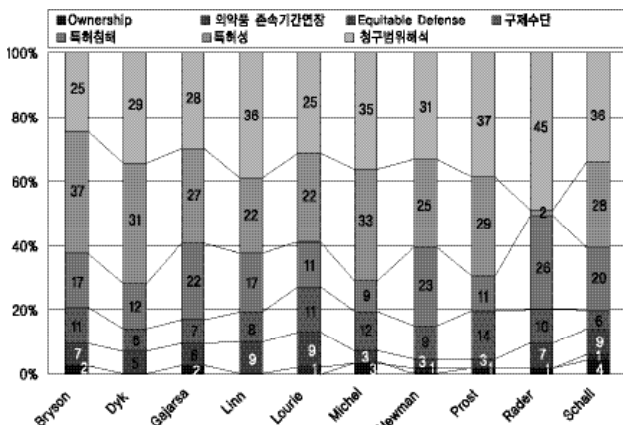


<그림 20> 산업분야별 판사현황

주요 판사의 ISSUE별 현황

그림 21은 판사별 현황을 ISSUE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판사가 청구범위 해석과 특허성 및 특허 침해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ISSUE별 판사현황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한 Rader 판사의 경우 청구범위 해석에 관련된 사건은 가장 많은 45건을 담당하였지만, 특허성에 관련된 건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 피고별 분쟁현황

주요 원 · 피고별 분쟁현황

주요 원고의 현황

SMITHKLINE BEECHAM CO.가 5건(16%)으로 가장 많이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NORIAN CO.는 4건(12%), 그 외 기업들은 각 3건(9%)의 제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고의 현황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16건(25%)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특허출원의 거절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것이다.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된 경우로서는 MICROSOFT CO가 7건(11%)으로 가장 많은 제소를 당했으며, 미국무역위원회(ITC) 및 APOTEX CO.가 각각 6건(10%), TEVA PHARMACEUTICALS USA 5건(7%)을 차지하였다.

주요 원 · 피고별 / 산업분야별 분쟁현황

주요 원고의 산업분야별 분쟁현황

전체적으로 화학/제약/바이오 분야에 관한 제소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SMITHKLINE BEECHAM CO., NORIAN, MONSANTO COMPANY 및 PFIZER가 화학/제약/바이오 분야에 관한 제소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고의 산업분야별 분쟁현황

전체적으로 화학/제약/바이오 분야에 관련된 제소건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전자 분야에 관한 건이 17건, 기계/금속 분야에 관한 건이 15건을 차지하였다. MICROSOFT CO.는 전기/전자 분야에 관하여 7건의 제소를 당하였고, APOTEX CO.는 화학/제약/바이오 분야에 관하여 6건의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 · 피고의 ISSUE별 분쟁현황

주요 원고의 ISSUE별 분쟁현황

청구범위해석에관련된분쟁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특허성, 특허침해및구제수단에관련된분쟁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5건의가장많은제소를한SMITHKLINE BEECHAM CO.의경우특허침해, 특허성 및청구범위해석 등 여러ISSUE와 관련하여 분쟁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주요 피고의 ISSUE별 분쟁현황

특허성과청구범위해석에관련된분쟁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이는 특허침해를 이유로특허권자가제소한 경우, 피고가특허의무효를주장할때특허성과청구범위해석이주ISSUE가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권리침해와관련해서MICROSOFT CO.가여러ISSUE에걸쳐 가장 많은7건의제소를당하였고, APOTEX CO.가6건으로두번째로많은제소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주요 원 · 피고별 승 · 패소 현황

주요 원고의 산업분야별 승 · 패소 현황

EDWARD H. PHILLIPS, FISHER - PRICE, MON - SANTO COMPANY 및 PFIZER는 승소율이 높지만, ASPEX EYEWEAR, INTERNATIONAL RECTIFIER CO., NORIAN CO., NTP, SMITHKLINE BEECHAM CO. 및W.E. HALL COMPANY는패소율이높은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FISHER - PRICE는 환경/기타분야에서, PFIZER는 화학/제약/바이오분야에서 100%의 승소율을 보인 반면, ASPEX EYEWEAR는 환경 /기 타 분 야 에 서, INTERNATIONAL RECTIFIER CO.는전기/전자분야에서, W.E. HALL COMPANY는기계/금속분야에서 100%의패소율을보이고있다.

주요 피고의 산업분야별 승 · 패소 현황

전체적으로 피고의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GRACO CHILDREN'S PRODUCTS, ITC, TEVA

PHARMACEUTICALS USA의 경우에는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APOTEX CO.는 화학/제약/바이오분야에서, A.L. CORRUGATING는 전기/전자분야에서 100%의 승소율을보인반면, GRACO CHILDREN'S PRODUCTS는환경/기타분야에서 100%의패소율을보이고있다.

주요 원고의 ISSUE별 승 · 패소 현황

청구범위해석에관련된분쟁에서는대부분원고가패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성에 관련된 분쟁에서는 원고가 승소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주요 피고의 ISSUE별 승 · 패소 현황

APOTEX CO. 및ATLANTA CORRUGATING는여러ISSUE에 관련하여 제소를 당하였으나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ITC는 청구범위해석및 특허성에관련된 분쟁에서패소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MICROSOFT CO.도많은제소를 당하였지만청구범위해석과 특허성에관련된 분쟁에서 승소가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청소년사이트 "발명틴틴"

www.ipacademy.net **발명 특허 무료교육 사이트**



- 특허교육을 발명교육과 함께 하는
발명특허교육입니다.
- 발명교육을 위한 발명교육
발명교육을 위한 발명교육
발명교육을 위한 발명교육
- 특허교육을 위한 발명교육과
발명교육을 위한 발명교육



청소년 · 발명교사를 위한
발명교육전용사이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로 오세요.

차량용 블랙박스 특허 분석

운행정보 측정/저장 및 분석 기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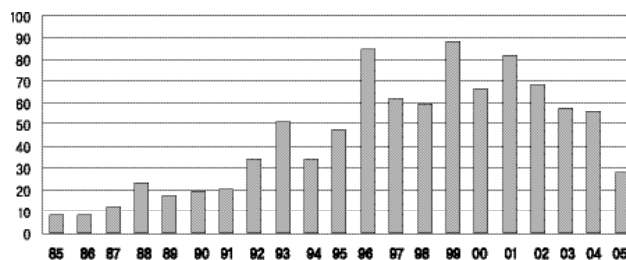
운행정보측정/저장및분석기술발전동향

차량용 블랙박스에서의 정보 측정/저장 및 분석에 대한

[연재 일정 안내]			
연 재	산업분야	세 부 분 야	과 제 명
2007. 1월호	기계/금속/건설	차량용 블랙박스(1)	제1장 기술의 개요
	정보/통신	DRM(1)	
	정보/통신	텔레매틱스 단말기(1)	
2007. 2월호	기계/금속/건설	차량용 블랙박스(2)	제2장 전체특허동향
	정보/통신	DRM(2)	
	정보/통신	텔레매틱스 단말기(2)	
2007. 3월호	기계/금속/건설	차량용 블랙박스(3)	제3장 심층특허분석
	정보/통신	DRM(3)	
	정보/통신	텔레매틱스 단말기(3)	
2007. 4월호	기계/금속/건설	차량용 블랙박스(4)	제4장 결론
	정보/통신	DRM(4)	
	정보/통신	텔레매틱스 단말기(4)	
2007. 5월호	전기/전자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1)	제1장 기술의 개요
	전기/전자	AMOLED LTPS 기술(1)	
	전기/전자	반도체 평탄화 기술(1)	
2007. 6월호	전기/전자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2)	제2장 전체특허동향
	전기/전자	AMOLED LTPS 기술(2)	
	전기/전자	반도체 평탄화 기술(2)	
2007. 7월호	전기/전자	전계방출 디스플레이(3)	제3장 심층특허분석
	전기/전자	AMOLED LTPS 기술(3)	
	전기/전자	반도체 평탄화 기술(3)	
2007. 8월호	전기/전자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4)	제4장 결론
	전기/전자	AMOLED LTPS 기술(4)	
	전기/전자	반도체 평탄화 기술(4)	
2007. 9월호	화학/생명공학	서방형 약물 전달시스템(1)	제1장 기술의 개요
	화학/생명공학	나노 의약품 개발기술(1)	
	화학/생명공학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1)	
2007. 10월호	화학/생명공학	항비만기능성식품소재및제품 (1)	제2장 전체특허동향
	화학/생명공학	서방형 약물 전달시스템(2)	
	화학/생명공학	나노 의약품 개발기술(2)	
2007. 11월호	화학/생명공학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2)	제3장 심층특허분석
	화학/생명공학	항비만기능성식품소재및제품 (3)	
	화학/생명공학	서방형 약물 전달시스템(3)	
2007. 12월호	화학/생명공학	나노 의약품 개발기술(3)	제4장 결론
	화학/생명공학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3)	
	화학/생명공학	항비만기능성식품소재및제품 (4)	

※ 상기 연재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쟁대비특허정보넷 (<http://www.patentmap.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년동안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출원및등록된 특허동향을살펴보면, 차량의주행및사고정보를측정/저장및분석에대한특허출원은전체특허출원동향과비슷하게 1996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안정세를보이고있다.



[그림 2-4] 운행정보 측정/저장 및 분석 분야 연도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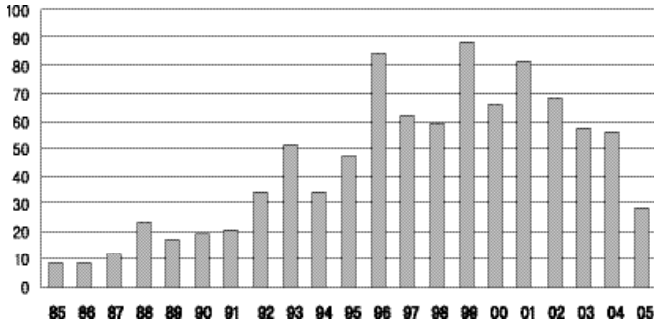
각국가별출원비율은일본의경우 342건, 38%로가장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한국과 미국이 202건, 203건, 23%의분포를보이고있으며, 유럽의경우 174건, 19%의출원을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운행정보측정/저장및분석기술에대한각국가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공개제도의변화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출원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 관련산업의 발달이활발히 이루어짐을알수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관련 기술의 연구가진행 된것으로보이고있으며, 유럽은전체적인건수가다른국 가에 비하여 적으나 그 출원 비율은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운행 기록과 관련된 관련 산업 발전

에따른네비게이션및주행정보측정기술의발전으로 정보 측정/저장 및 분석 분야에서 가장 높은 출원을 보이고 있다.



[그림 2-5] 운행정보 측정/저장 및 분석 분야 기술분류별 동향

기술 분류별로는 과거 운행기록계에서부터 현재의 블랙박스 기능까지를 포함하는단말기 내부 센서를 통한 정보 측정/저장 기술이 가장 높은 출원을 보이며, 사고 및 충돌 감지/판단에 대한 기술, 외부매체를 활용한 정보 측정/저장 기술, 데이터 해석 분야의 기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행정보측정/저장및분석분야에서는주행및사고정보의측정/저장에서최근에는사고해석과GPS, 카메라등을활용하는다양한정보습득과정정보분석기술에대한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으며, 향후기술발전방향또한기존 단순 정보측정/저장에서획득된 정보를 분석하여사고의 원인규명및관련서비스기반정보를제공하기위한기술의발전이예상된다.

운행정보측정/저장및분석기술특허심층분석

차량용블랙박스의주요특허를선정하는기준으로서각 기술분류에대하여블랙박스를생산하고있는국내외주요 업체의 특허를 중심으로 주요특허를 선정하였으며, 각 특허에서제시하고있는기술내용을파악하였다.

블랙박스단독정보 측정/저장 기술은차량의운행에대한정보를측정/저장하는기술로서 차량의 내부센서와블랙박스내의센서등을 이용하여차량의 운행에대한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의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블랙박사이전개념의운행기록계에대한 특허들도운전정보측정/

저장분야에 포함되며, 이러한 운행기록계에서 발전된 블랙박스 기능을 포함한 특허들에서는사고/충돌감지및 판단 기술을 포함하여 차량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추세로 발전하고있다.

또한 블랙박스 및 차량내부 센서 외에 차량의내외부의 장착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영상/음성 정보를 저장하는 특허들과, GPS 위성을이용하여, 차량의기본정보외의도로상의위치, 차량의사고지점정보등차량의외적인외부환경 요인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다.

특히영상/음성정보와GPS 신호를통한위치정보를통해서 사고 정황 정보를 통한 데이터 해석 전 단계로, 영상 디스플레이, GPS log 재생등으로운행상태를점검하는효과를보인다.

사고및충돌감지/판단기술영역에서는사고발생시사고감지, 판단신호를매개로사고차량의속도, 위치, 방향, 구성품의작동상태, 운전자및차량의내외부영상정보등의저장을유지하거나실시간으로정보를전송하는기술적 내용들이주요특허에서주로나타나고있다.

가속도센서 및 방향 각속도 센서 또는에어백의구동신호등은 가속도의급격한 변화에의한 신호를생성하여 사고상황 발생시구현되는 안전장치및 경고장치를 구동하고있다.

또한 가속도 센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방향 각속도 센서를쓰거나, 방향각속도센서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가속도센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등 가속도와 방향 각속도를중심으로상호보완을통해차량의거동을표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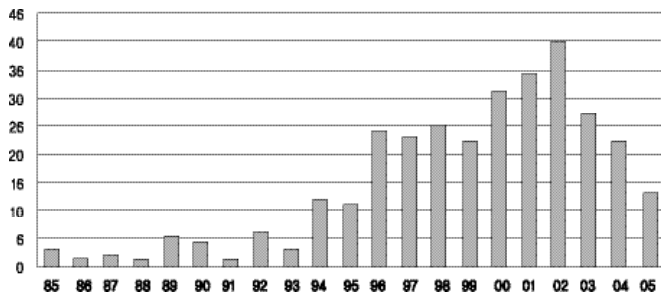
데이터해석분야는차량의사고및운행정보를측정, 저장한데이터를메모리및 실시간통신을통하여제공받은 이후정보분석을통해사고원인규명및사고재현을이루는블랙박스의핵심기술이다.

사고원인분석및재현을통한사고상황의분석또는현재의운행및주행에대한구성품의작동상태등을실시간으로제고함으로써, 교통혼잡완화및사고예방에효과적이다.

또한, 운행정보및차량내부구성품의작동상태에대한 측정값과영상정보를디스플레이하여차량관리에이용한 차량모니터링시스템등으로활용가능하다.

운행정보 활용 기술 특허 분석

운행정보활용기술동향



[그림 2-6] 운행정보 활용 분야 연도별 동향

운행정보 활용기술은 앞서 운행정보 측정/저장 및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측면의 활용 기술로서, 1990년 중반 이전의 출원은 미약하며, 1990년 중반 이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각 국가별 출원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87건으로 2순위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 공개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그 출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ITS 산업 발전 영향 등으로 인해 네비게이션 및 차량용 블랙박스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등의 기술력의 발전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가장 높은 출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의 정보 활용에 대한 기술 발전 분야는 아직 미약하나 텔레매틱스 관련 기술을 중

심으로 통합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운행정보 활용 기술은 블랙박스 저장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이룰 수 있도록 전송하는 사고통보 기술과 블랙박스 저장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 운전자 평가 및 위험 운전 경고, 고장 진단, 기타 텔레매틱스 기반 기술 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운행정보 활용 기술은 차량용 블랙박스 저장 정보를 전송 받고, 중앙 관제 센터 등에서 관리하며, 중앙 관제 센터에서는 경찰, 병원, 보험사, 정비 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통 사고 후속 처리 및 인명 구조, 평시 주행 평가 및 고장 진단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프라로 구성되며, 차량용 블랙박스의 저장 정보는 하나의 시스템 상에서 각 소분류별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각 기술 분류별 기술들이 고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행정보 활용 기술 심층 특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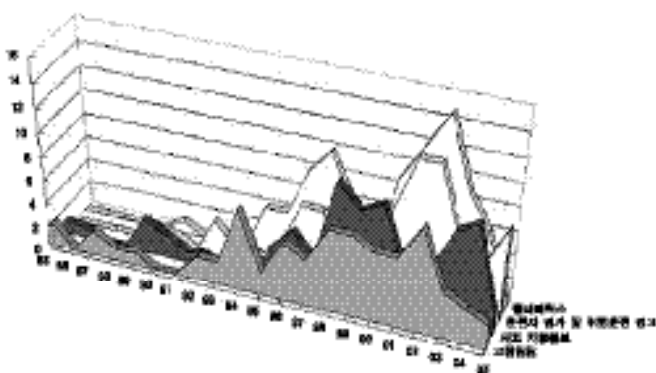
운행정보 활용 특허의 기술적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제조사를 기준으로 주요 특허를 선정하고 그 기술적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고 자동 통보 기능은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저장된 정보의 전송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자동 전송과 운전자의 응급 상황에 대한 수동 호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사고 자동 통보 기능은 특히, 사고 시의 차량의 위치 및 주변 상황 정보 등을 중앙 관제 서버로 전송하며, 중앙 관제 서버에서는 경찰, 보험사, 병원 등 전송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명 구조 및 사고 후속 처리 등이 서비스 시스템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다.

블랙박스 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운전자 평가 및 위험 운전 경고 기술은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위험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경고를 발생하거나, 위험 운전에 대한 빈도 수 및 경중에 대한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운전자의 주향 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운전자의 성향 및 위험 운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차등 적용, 운수 업체의 차량 및 운전자 관리, 운전자 재교육 등으로 활용



[그림 2-7] 운행정보 활용 분야 기술 분류별 동향

이가능하다.

주요출원인들은이러한운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차량 거동 표현과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술적내용과 관련된특허들을출원하고있다.

블랙박스의정보를활용한서비스적측면의특허기술로서 차량의내부센서에의한운행정보를 저장하여, 차량의 고장진단기술과관련된특허들이출원되고있다.

블랙박스에 저장되는 주행 상황에 따른 내부 구성품의 작동상태를 사고 상황발생시에 국한하여 저장하지 않고 일정 주기로 계속 측정 저장하여 차량의 현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소모품의 교환 주기, 작동 불량 상태 등을 점검 하여운전자에게 알려줄수있는 기술을 특허로 제시하고 있다.

사냥용 신발

레온우드 빈, 미국 스포츠용품 판매회사의 창시자인 그는 처음에 사냥용 신발을 만드는 일로 사업을 일으켰다. 빈은 스무살이 되는 1893년 어느 날, 신발가게에서 일하다가 쉬는 틈을 이용하여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열한살 때 아버지로 부터 뗏을 받고 사냥을 했는데, 신발들을 보다가 문득 ‘사냥을 할 때 편한 신발은 없을 까?’ 하고 궁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짐승을 쫓거나 산에서 이동할 때는 든든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곧 윗부분을 질기고 편한 가죽으로 사용하고, 고무로 된 바닥의 사냥용 신발을 구상한 그는 시험삼아 두 켤레를 만들어 손님에게 건네주었다. 그랬던 것이 주문량이 100켤레로 늘어났다가 반품되는 과정에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빈은 본격적으로 사냥용 신발을 개발해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왕연중 記)



DRM 특허분석

사용권한 제어 특허분석

사용권한제어기술에서는복제방지와유통시스템분야의 특허출원이가장 많았고, 복제방지에서는 저장단 복제방지가가장많았으며, 출력단 복제방지분야도많이출원되었다. 유통시스템분야에서는프레임워크의특허출원이비즈니스모델에비해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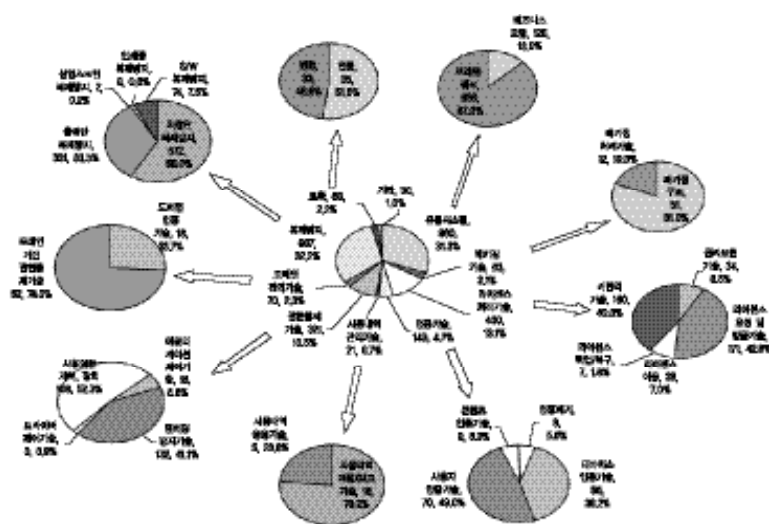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2001년에 유통 시스템의 출원이 많아지면서연도별동향에피크를이루며, 최근에는유통시스템외에라이센스처리기술및권한통제기술에서의출원증가가두드러졌다.

미국에서는 선도기업들의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가파르게 출원이증가하고있는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유통시스템, 라이센스처리기술, 권한통제기술및복제

방지분야의출원이많으며, 연도별로는 2001년에유통시스템과복제방지기술에서전년대비2배이상큰폭으로증가한이후증가세가유지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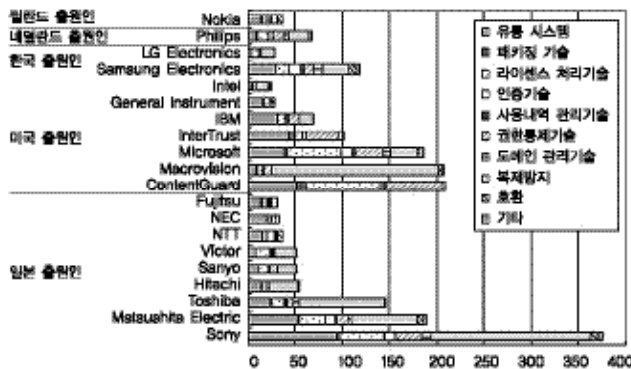
일본에서도 유통 시스템, 라이센스처리기술, 복제방지기술의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에서는 유통 시스템, 라이센스처리기술, 복제방지기술의 출원이 많은 것은타국가와마찬가지이지만, 1995년에출원이눈에띄게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이시기에ContentGuard 41건, Sony 11건, Macrovision 5건등으로나타났다.

이 분야의 출원인별 특허출원현황은일본 Sony가 37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고, 이어서 미국의 ContentGuard와 Macrovision의 각각 209건, 208건을출원하였으며, 그 뒤로 Matsushita Electric, Microsoft, Toshiba, Samsung Electric의순으로출원하였다.



[그림-5] 사용권한 제어 분야의 기술별 특허 출원비율

- 일본기업은자국은물론미국에많은출원을하였으며, Sony는유럽에도 상당수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미국기업은자국및유럽에많은출원을하였다.
- 한국 기업으로는 Samsung Electronics와 LG Electronic가 눈에 띄고, 한국기업 외에한국에특허를출원한기업으로는Sony, Matsushita Electric, ContentGuard, Macrovision, Microsoft, Philips가 눈에 띄었다.



[그림-6] 사용권한 제어의 출원인별 기술별 특허 출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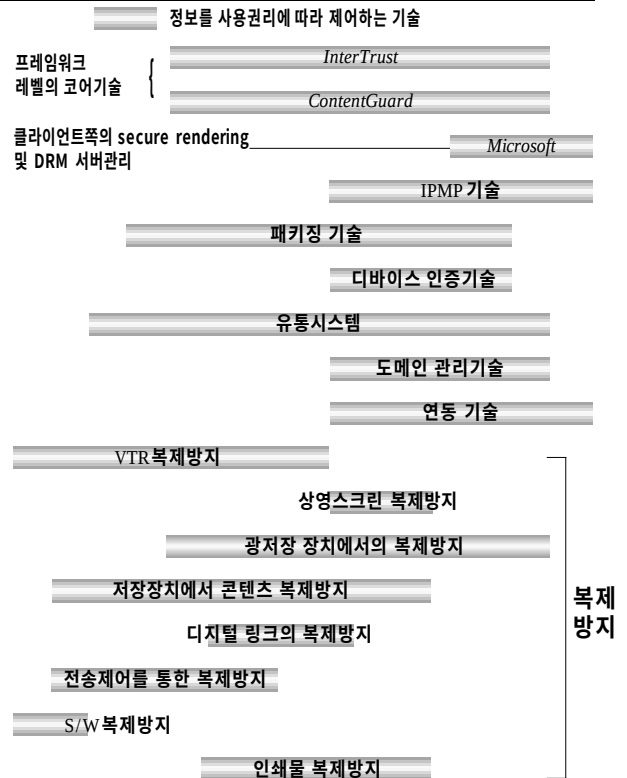
이 분야에대한주요특허를세부기술별로출원연도또는우선권주장일에따라정리하여[그림 7]에나타냈다.

Fuji Xerox, ContentGuard, InterTrust에 의해 1990년대 초반에 주요 기술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이후 InterTrust에 의해서 안전한 거래 관리 및 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ContentGuard에 의해서 디지털 문서의 사용권한 관리 및 배포 시스템에 관한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었다. 한편, InterTrust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후 적극적인 특허 전략을 실시한 Microsoft에서는 2002년 이후 클라이언트 쪽의 secure rendering 및 DRM 서버 관리 위주의 특허 출원을 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디어 매체 또는 기록 저장 장치(예: 비디오 테이프, CD, 메모리 장치 등)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 방지 기술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Matsushita Electric과 Canon에 의해 MPEG IPMP-x에 대한 특허가 다수 출원되었다.

사용권한 제어 분야에서 주요 특허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어느 정도 출원이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75 '88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그림-7] 사용권한 제어의 주요 특허의 흐름

2000년이후DRM 기술이상용화되면서주요기술을기반으로한 개량특허및 주변특허들 위주의응용특허들이 나왔다. 최근의응용특허들의주된내용은 DRM모듈의보안성강화를위한기술과상이한DRM 기술들간의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CAS와 복제방지기술, DRM 기술의 통합을위한연동기술, 그리고 최근의사회적 요구에따른 사적복제를지원하기위한도메인관리기술등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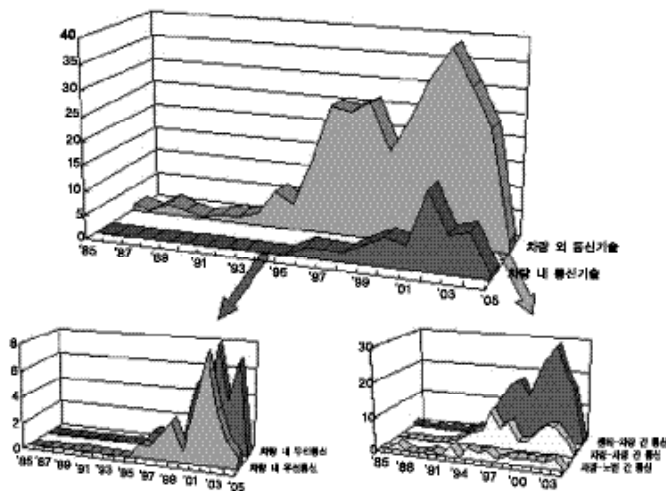
※사용권한제어특허분석외에 CAS, 워터마킹등의 특허분석은본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텔레매틱스 단말기 특허분석

텔레매틱스 통신 특허분석

특허동향및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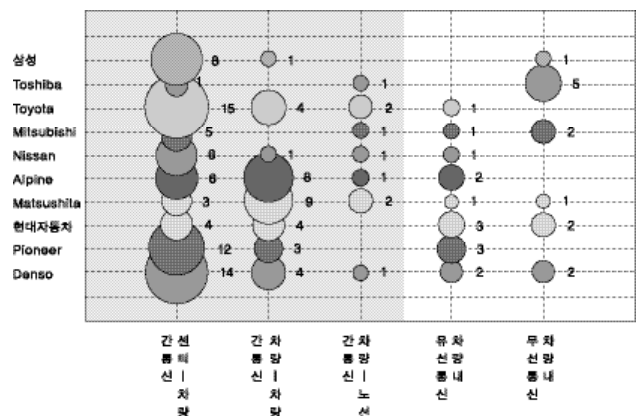
[그림 2 - 5]는 텔레매틱스 통신 분야의 세부 기술별 특허출원동향으로서, 차량외통신과관련된기술이지만 10여 년간 꾸준히 출원되었으며, 차량 내 통신 관련기술은 2000년부터출원건수가본격적으로증가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차량외통신분야에서는센터 - 차량간 통신기술이 집중적으로개발되었고, 차량 내 유 · 무선 통신기술의 개발에도많은노력이경주되고있다.



[그림 2-5] 기술분류별 특허출원동향

[그림 2 - 6]은 텔레매틱스통신분야의주요출원인들의 각세부 기술 분야별 기술점유도를파악하기 위한 그래프로서, 전체적으로는차량외통신기술분야, 그중에서도특히 센터 - 차량 간 통신과 차량 - 차량 간 통신과 관련된분야에 출원이집중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분야별

로는 센터 - 차량 간 통신 분야에서는 Toyota, Denso, Pioneer가, 차량 - 차량간 통신분야에서는Matsushita와 Alpine이, 차량 내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Toshiba가 각각 해당 분야에서 타출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높은 기술 점유도를보여주고있다.



[그림 2-6] 주요 출원인의 세부 기술별 기술점유도

심층특허분석

<표 2 - 1>은 텔레매틱스 통신기술에 있어서 주요 해결 과제로떠오르고있는통신의안정성, 통신의효율성및통신인터페이스의다양화와관련된주요특허들의목록을보여주고있다.

표 2-1 텔레매틱스 통신기술의 분석특허목록

종분류	해결해야 할 과제	등록번호		
센터 - 차량 간 통신	통신의 안정성	US5648769	US6338020	US6298301
	통신의 효율성	US6111539	US6202024	US6487494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US6185501	US6374177	US6735506

표 2-2 센터와 차량 간의 통신기술에 관한 특허 간 권리범위 비교

권리범위 비교·분석			
삼성전자 한국특허 제508807호	Toyota 한국특허 제337417호	British telecom. 한국특허 제385819호	삼성전자 한국공개특허 제2004-64346호
본 특허는 비교 대상 중에서 가장 늦게 특허되었음에도 비교적 권리범위가 넓은 기본특허에 해당함. British telecom.의 제 385819호와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서 본 특허에서는 자동차의 이동에 따라 지도정보를 맷쉬 단위로 전송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비교 특허 중에서 가장 먼저 특허된 기술로 외부로부터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지도정보를 취득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타 특허와는 외부로부터 지도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불감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상정하여, 그 전에 미리 지도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	본 특허는 삼성전자의 제 508807호와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음. 다만, 고정유닛에서 이동유닛으로 전송되는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 삼성전자의 ‘807특허’에서는 맷쉬 단위의 지도정보를 송신하나, 본 특허에서는 이동유닛의 예상범위에 따른 정보를 전송하며, 이동정보가 예상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본 특허는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동통신서비스의 페이지 채널에 교통정보를 포함시켜 전달하는 점에 특징을 가지고 있음. British telecom.의 ‘819 특허’에서는 셀룰러 전화의 다이얼 톤(DMTF)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점에서 본 특허와 차이가 있음.

본보고서에서는선별된주요특허들에대하여각특허에 개시된 특징적 기술 사상을 상세히 정리하고, 기술발전도 및 기술 매트릭스 분석을통하여 주요특허 상호간의상관 관계등을면밀하게분석하였다.

주요특허로 분류된 국내등록특허 중, 국내외의복수업체가유사한특허를보유하고있는기술로서“센터와차량 간의통신”분야에서자동차의위치 정보에따라지도정보

를 제공하는 장치와 관련된 4개 특허를 선별해 각 특허의 권리범위를상세하게비교하였다.(<표2-2> 참조)

※ 텔레매틱스 통신 특허분석 외에 단말기 유닛, 차량 항법, 지원 서비스 등의 특허분석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정보활용지원팀

발·특2007.3

사람이 입는 로봇옷

사람이 옷을 걸치는 것만으로 로봇과 같은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 옷을 입기만 하면 사람은 못해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마치 영화<에어리언>에서 여주인공이 괴물과 싸울 때 입었던 작업용 갑옷과 비슷한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쓰일 날도 멀지 않았다.

일본 도쿄에 있는 전자통신 대학의 카주오 야마후지 교수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세르게이 유리야노프 박사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토목공학과와 마리아 팽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중인 로봇옷이 그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구조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로봇옷의 개발은 현재 티타늄 갑옷, 특히 팔꿈치, 무릎, 그리고 다른 관절에 로봇기술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왕연중記)



특허분쟁 사례 특허법원 판결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8. 17. 2005당1865호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심결의 경위

[증거] 갑1 내지 3호증, 갑5, 6호증의 각 기재

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와 원고의 확인대상서비스표

(1)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① 구성: 

②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46465호/1997. 2. 12./1998. 8. 31.

③ 지정서비스업(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유아용품 판매대행업, 유아교육, 지도상담업, 유아교육용 프로그램개발업, 유아용품 전시업, 유아용품임대업, 유아학원경영업, 탁아소업, 유아교육에 관한 통신강좌업, 어린이놀이터경영업, 유아지능개발지도업

제3부

판 결

사 건	2006허8415 권리범위확인(상)
원 고	주식회사 베베하우스 서울 대표이사 특허법인원전 담당변리사 임성태
피 고	보령메디앙스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변론 종 결	2006. 12. 21.
판결 선고	2007. 1. 25.

(2)원고의확인대상서비스표

①구성: www.bebehouse.com

②사용자: 원고

③사용서비스업: 임신, 출산, 육아관련정보제공업및임신,출산,육아관련용품에대한인터넷쇼핑몰운영업

나. 피고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대한인용심결

(1)피고는, 원고가사용하고있는확인대상서비스표가 피고의등록서비스표와표장및서비스업이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다.

(2)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06. 8. 17. 피고의청구를인용하는심결을하였는바, 그심결이유의요지는아래와같다.

【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소 다르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다. 또한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과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유아, 아동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이사건의쟁점과양쪽당사자주장의요지

이사건의쟁점은, 원고가확인대상서비스표를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확인대상서비스표와등록서비스표의표장이동일·유사한지여부에있는바, 이에관한양쪽당사자주장의요지는아래와같다.

가. 원고의심결취소사유주장의요지

(1)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사용되지아니함

원고는웹사이트의도메인이름으로서만확인대상서비스표를사용하였을뿐이고제공서비스의출처를표시하기위해서이를사용한것이아니다. 따라서, 확인대상 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2)표장의비유사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모두상이하여서서비스의출처에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유사한표장에해당하지않는다.

나. 피고의심결유지사유주장의요지

(1)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사용됨

원고는확인대상서비스표와 동일한도메인이름으로웹사이트를개설하여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을 하였고,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도 확인대상서비스표가 구성요소로포함되어있으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는상표법상의서비스표로사용되었다.

(2)표장의유사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인“ bebehouse”부분의영어식발음에따라‘ 비비하우스 ’또는‘ 베베하우스 ’로 호칭된다. 한편,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결합표장으로서문자부분인“ BB house ”의영어식 발음에 따라‘ 비비하우스 ’로 호칭된다. 그러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비비하우스 ’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설령‘ 베베하우스 ’로호칭되는경우에도어두부분 두음절의모음만‘ 에 ’와‘ 이 ’로미세하게다를뿐이어서호칭이유사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호칭이동일하거나유사하여서비스의출처에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있으므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3.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도메인이름이서비스표로서사용되었는지여부를 판단하는기준

타인이등록서비스표와유사한표장을서비스업과

관련하여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장이 서비스표의본질적인기능이라고할 수있는 ‘서비스의출처표시’를위하여사용되었다고볼수없는경우에는등록서비스표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특히, 도메인 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인터넷프로토콜주소(IP 주소)를사람들이 인식·기억하기쉽도록숫자, 문자, 기호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상품이나 영업의표지로사용하기위한것이아니다. 또한, 도메인이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그 도메인 이름으로 개설되어서비스의제공에사용되는웹사이트로유인하더라도, 이는 도메인 이름이갖는 본질적인기능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곧바로 상표법상 서비스표의출처표시기능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독자적인별도의서비스표를사용하고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별도의서비스표가서비스의출처를표시한다고보아야하므로, 도메인이름자체가곧바로상표법상의서비스표로서사용되었다고볼수없다.(대법원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참조)

나.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대한판단

(1)갑5호증의기재에의하면, 원고가확인대상서비스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아용품을 판매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같은사정만으로확인대상서비스표가상표법상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단정할 수없고, 달리이를뒷받침할만한증거가없다. 오히려갑5, 6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위 서비스업을 함에있어서 2002. 12. 20. 출원하여2005. 6. 16. 등록번호제11761호로등록 받은 서비스표인  (이하,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 라고함)를독자적인별도의서비스표로서사용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원고가운용하는웹사이트의도메인이름으로서만사용되었을뿐상표법상의서비스표로서사용되었다고볼수없다.

(2)이에대하여피고는확인대상서비스표가원고의등록서비스표의 구성요소로서 등록서비스표와 일체를이루어서서비스의출처표시를함으로써상표법상의서비스표로서사용되었다는취지로다툰다.

살피건대, 확인대상서비스표가원고의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서비스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해당한다면상표법상서비스의출처를표시하는 기능을한다고보아야한다.

갑5호증의기재에의하면, 원고의등록서비스표는 굴뚝에서연기가나는집 모양의 도형과 그오른편에한글“베베하우스”가결합되어있고, 한글“베베하우스”하락쪽에는확인대상서비스표에 해당하는영문자“www.bebehouse.com”가위치하고 있는 결합표장인사실이인정된다. 그러나 위 도메인 이름은한글“베베하우스”보다훨씬작은글씨체로되어 있고,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서자리 잡고 있는 위치도가운데아랫부분이어서, 등록서비스표의다른구성부분인도형이나한글“베베하우스”와비교할 때일반 수요자와거래자의주의를 끌기는 매우 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식별력이아주미약하여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중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상표법상의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볼수없다.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 소결론

결국,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4. 확인대상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한지여부

가. 서비스표의동일·유사여부판단기준

서비스표는 자신과 타인의 서비스를 식별시켜서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된다. 그러므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

(1) 외관 대비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 “www”와 “bebe house” 및 “com”이 “. ”에 의하여 가로방향으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문자표장이다. 한편, 등록서비스표는 하트모양 도형인  위에 작은 점 두 개가 찍혀 있는 도형과 영문자 “BB house”가 결합된 표장이다. 그런즉,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

(2) 호칭 대비

확인대상서비스표 중 “www”는 도메인 이름에서 world wide web의 약자로 표기되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 중 호칭될 수 있는 부분은 “bebehouse.com”인바, 이는 일반 소비자들과 거래자들의 영어식 발음 경향에 따라 ‘베베하우스 닷 컴’ 또는 도메인 네임에서 company의 약자로 표기되는 “.com” 부분이 생략된 ‘베베하우스’로 호칭된다. 한편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는 통상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이 결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인 “BB house”의 영어식 발음인 ‘비비하우스’로 호칭된다. 그러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베베하우스 닷 컴’으로 불리는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이 현저히 상이하다. 또한, 확인대상서비스표가 ‘베베하우스’만으로 불리는 경우에도 두 서비스표는 우리나라의 언어 관행상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어두 부분의 호칭이 각각 ‘베베 와’ ‘비비 로’ 상이하고, 또 ‘베베 와’ ‘비비’는 청감이 상이한 음절이 각각 2회씩 반복하여 호칭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

반수요자와 거래자는 그러한 청감의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호칭도 상이하다.

(3) 관념 대비

확인대상서비스표 중 “bebe”는 프랑스어로 ‘아기’라는 뜻을 가지나,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보급 수준에서 볼 때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는 이를 ‘아기’로 관념하기보다 조어(造語)로서 인식할 것이다. 한편, 등록서비스표 중 도형 부분은 별다른 관념을 생성하지 않고, 문자 부분 중 “BB”는 영문대문자 B를 중복 표기한 조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각각 bebe 부분과 BB 부분이 조어로 인식되므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확인대상서비스표를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실령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확인대상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어느 모로 보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호	_____
	판사	서영철	_____
	판사	박원규	_____

제공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patent.scourt.go.kr/

발 • 특 2007. 3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발명



‘인류건강을위한발명기업 이란목표로 1992년 「햇님뜸」이란 브랜드를앞세운
침뜸전문제조업체로최고의효과를위해좋은약쪽으로정평이난강화약쪽으로
로고부가가치명품만생산하는회사입니다.

변화하는시대가요구하는발명개발에서시대를리드하는발명기업이되기위하여
30여건의발명으로세계최초의무연뜸의 발명에서현대의학의보완요법인대체의학
의세계시장이필요로하는침뜸요법을하나로 통합하는압봉을 발명하여 ‘ 신약개발
의가치를지닌발명 ’이란기술신보의평가를받아 ‘ 혁신기업 ’으로인증되었습니다.

2006년 경희대학 한방병원 침구과에서 우수한 효과를임상으로 검증받아 가치를
객관화하였습니다.

아픈곳이나경혈에쉽게붙이기만하여도침과뜸의효과를수일간 지속하는 햇님
압봉은 ‘ 아프다, 감염의위험이있다, 뜨겁다, 화상입는다. 는침뜸의거부감을해소시
켜세계대체의학시장의장벽을해소하였습니다.

2006년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일본에 수출인력을 파견하고, 지원팀의 협력으로
미국, 호주, 독일에수출을시작하면서각국의바이어들과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
국내의특허, 실용신안등록과 PCT를 거쳐 5개국에특허출원을 하고, 각국의민족기
호에부응하는제품의 효력과 디자인을차별화하는 과정이며, 호주빅토리아대학의
협력연구국제화제외에적극 협조하여명실공히 ‘ 민족의학세계화 를이루기위하여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아픈 곳이나 경혈에 쉽
게 붙이기만 하여도 침
과 뜸의 효과를 수일간
지속하는 햇님압봉은
침뜸의 거부감을 해소
시켜 세계 대체의학 시
장의 장벽을 해소하였
습니다

햇님뜸 제조원 보성사

본 사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33-7 동양빌딩 1층

T E L : (국번없이) 1566-1929

홈페이지 : www.haitnim.co.kr

E-mail : grigo@haitnim.co.kr



▶ 압 봉

침과 뜸을 하나로-압통점 및 경혈점에 2~3일 붙이는 것만으로도 침과 뜸을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식 일회용품이다.

국내특허 3건

PCT공개공보-미국, 일본, 중국, 독일 출원



▶ 마 니 나

햇님뜸 마니나는 연기 적은 미연뜸이며, 일회용 뜸이다.

기존의 일회용 뜸의 약 7~10개에 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환부 경혈용 뜸 제품이다.

특허 · 실용신안



▶ 신 기 구 (쑥 봉)

햇님 신기구(쑥봉)은 강화사자발쑥 100%로 가공이 되어 있어 연기가 적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 온 구 기

햇님뜸 온구기는 연기가 적고 안전한 뜸으로 뜸의 대량요법 시대를 개척한 제품이다. 향토와 생약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열되면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등 각종 효과를 낸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특허

유사품이 많은 대한민국 대표 뜸기구

연 혁

1992년 한국 · 일본 특허 무연뜸으로 창업(경기 양주)
1993년 공장화재로 특허 K사에 2억 5천에 양도
1994년 약쑥뜸 발명 생산
1995년 LA국제발명전 은상 수상
1996년 우수발명지원 뜸기 개량 생산(4개국 특허)
1999년 미연뜸 발명생산 (공장 강화로 이전)
2000년 김포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쑥 식품 개발 생산

2003년 두뇌건강뜸기 발명생산
2004년 압봉발명 개발
2005년 국무총리상 수상
2006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압봉임상효과 입증
2006년 중소기업청지원 수출인력 일본파견
2006년 혁신기업 인증

교통사고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개발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DREAMTECH (주)드림테크

지난 십년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크게 줄었지만 보행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 재래보다 차가 먼저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네덜란드(0.6명)의 10.6배에 이르는 것으로 스웨덴(0.7명), 독일(1.1명), 미국(1.7명), 일본(2.2명)에 비해서도 최소 3배 이상인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나라는 40.2%로 네덜란드 9.4%, 프랑스 10.3% 등의 국가에 비해 10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형태가 아직까지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점이 줄고 있는 등 우리나라도 교통안전 분야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교통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기술개발과정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2004년 기준) 보행자 사망자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약 8.7%로 선진국의 경우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0% 내외 비율임을 고려할 때 국내의 열악한 보행자 통행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 횡단 중 사망자가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48%이며, 이중 14%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 중 사망하였으며, 주간보다 야간에서의 사망자가 2배 이상 발생하였다.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부근 지역에서 야간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원인은 조명 시설이 부족하여 운전자들의 시계가 불량함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렵음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는 도로 외면 위에도 로를 가로질러 형성됨으로써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시설물로,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차량에 정지 신호를 보낸 후 통행을 지시하게 된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의 주의를 끌기만으로도 도로를 건너야 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라도 하더라도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의 해식별할 수 밖에 없는 데 가로등이 보도측과 도로의 가장자리만 밝혀주고 도로 중앙까지 밝혀주지 못하므로 운전자가 정지하지 못하고 통과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주)드림테크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의 양단에서 횡단보도를 조사함으로써 보행자를 부각시킬 수 있고 도로에 빛을 분산되지 않고 횡단보도만을 조사하여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만을 집중 조명하는 시설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횡단보도 조명 장치를 연구하게 되었다.

개발에 성공한 횡단보도 조명 장치는 횡단보도 이외 지역으로 빛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투광기 내에 특수 반사판과 반사각을 부착하여 횡단보도만을 집중 조명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위 조명과 차별화 되도록 고압 나트륨등을 사용하여 밝기 및 색상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멀리서도 횡단보도를



인식할수있으며눈부심이없고보행자식별이용이하도록 경사조명토록설계되었다.

보행자와운전자사고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일념으로시작된횡단보도조명등의개발은횡단보도조명장치에 대한기술표준이나연구실적이매우부족한실정으로부터는 것을처음시작해나아가야한다는점과그에따른관련전문 인력이나전문기술또한초보적인단계로기술응용의 어려움과한정된예산으로각종통시설물을설치해오므로발생했던예산의제한성등의애로사항이있었으나선진 교통문화정착과교통사고예방을통해보행자, 운전자 모두의안전과쾌적한교통환경문화정착에대한신념에 OECD 국가중교통사고후진국이라는국가적명예를벗어야한다는일념으로어려움을딛고지속적인기술개발에매진할수있었다.

다행히각종교통사고로인한국가적인손실이매우크다는 인식이확산되어있으며수요가한정된지역이아닌, 국가전체적인범위에서의수요창출이가능하다는점에서활용도가매우광범해질것이라는예상을할수있다. 교통후진국을벗어나교통선진국을만들자는범국가적인차원의캠페인및안전시설물의확충을추진중이며시의 적절한제품출시및 타제품과의차별화된특허개발제품으로설치지역에서의교통사고예방검증까지이루어져앞으로의수요확대가점쳐지고있다.

특허기술 평가과정

(주)드림테크는횡단보도를횡단하는보행자의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횡단보도조명장치에대한평가를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뢰하여지난2005년9월부터2005년11월까



▲ 횡단보도 조명장치설치 예



지진행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주)드림테크에서개발한횡단보도 조명장치의특허기술가치평가를중심으로철저히진행하였으며평가액183,000,000원에달한다는결론을내렸다.

정확한횡단보도조명으로인해보행자, 운전자와안전 예방이라는실용성과심플한디자인과각 관공서의로고, 캐릭터, 행사등을알릴수있는간판이별도로부착되어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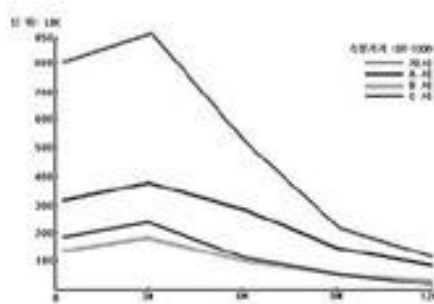
어해당도시의특징을쉽게나타낼수있는미관성까지고려하였으며개소1등기구설치로안전사고예방효과를절감할수 있는(주)드림테크만의기술력으로개발된 안전한횡단보도조명장치의기술력을인정받은것이다.

제공 특허기술평가팀

발 • 특2007. 3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내용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교통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개발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주)드림테크는 횡단보도 조명장치를 평가받으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평가수수료의 80%인 15,700,000원을 지원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기술 평가를 받으면서 (주)드림테크의 객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



▲ 기존제품과의조명도비교그래프

기를 마련했다.

이 특허기술 평가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특허 제품이라는 인식으로 수요기관의 꾸준한 구매가 증대되었으며 발명진흥회와 특허청의 “우선구매추천서”를 통한 구매 추천으로 제품의 신뢰성이 높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주간설치모습



▲보행신호등부착모습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제조 원가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지만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시설물 예산 확대로 매년 50% 이상의 수요 확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술로 전국 수요 기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주)드림테크는 특허, 의장등록, 실용신안을 비롯하여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INNO-BIZ), ISO-9001, 우량기술기업, 카톨릭상지대산학협력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비타민

1734년 여름 그린랜드를 향해중이던 영국 배에서의 일이다.

항해를 하던 선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괴혈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괴혈병은 죽음과 직결된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아직 죽지 않은 환자를 어떤 섬에 홀로 내려놓고 가버렸다. 얼마 후, 의식을 찾은 환자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과일과 싱싱한 풀로 허기를 채웠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환자는 괴혈병이 말끔하게 나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의해 구조되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영국 해군의 의사 제임스 린드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린드는 여러 종류의 식물을 분석한 끝에 야채와 레몬즙에 그 물질이 있음을 알아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50년이 지난 후에야 린드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왕연중 기)



Dictionary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의 장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만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디자인보호법에 있는 특유한 제도다.

유럽특허협력협약

일명 뮌헨조약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유럽시장 통합과 병행하여 지재권분야의통합을위해서 1973년성립된조약으로제정, 1977년 발효하였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유럽특허청(EPO)이설립되었다. 회원국은 유럽특허청(EPO)에 의한 단일화출원, 심사를 통해 각계약국에서허여되는특허와동등한효력인정을받는다.

유럽특허청

1973년에 제정(1977년 발효)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회원국 등이 EPO에 특허신청을 하면 회원국이 각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단일신청으로 유럽 각 지정국법에 다른 승인에 의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000. 12월 현재 총 20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전)유고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구유럽국가도 회원국 가입을 준비 중에 있다. 조직구조를 보면 청장아래에 5개의 국(Directorate General, DG)이 있어 5명의 국장이 청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DG1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으며 베를린에 지부를 두고 있다. DG1-5는 뮌헨에 위치하며 DG5중 특허정보관련 부서는 비엔나에 있다. DG1은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IPC(국제특허분류)분류, 서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1개의 서치심사과에 1100여명의 서치심사담당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56,000여건의 유럽서치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건 정도의 문헌을 수집, 가공, 분석 및 저장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특허정보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DG2는 실체심사와 이의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치보고서가 접수된 후 시사청구된 것에 대해 실체심사를 행하고 있다. 24개의 심사담당관실(화학8, 물리전기7, 기계9)과 방식 심

사, 분류, 문헌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다. DG3은 출원접수, 심사부, 이의부, 법률부의 결정에 대한 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79명의 변호사와 기술심사관들이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DG4는 행정관리담당부서로서 인사, 재정, 정보, 번역, 통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DG5는 법률,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특허제도

유럽특허출원은 독일 뮌헨의 EPO 본부와 네덜란드 헤이그 지청(DG1),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는 베를린에 있는 DG1지부에서 접수한 것으로 절차가 개시된다. 계약국의 특허청에도 출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헤이그 지청으로 이송이 된다. 방식, 서치, 실체 3가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서치심사는 서치심사부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후 담당심사관에 의해 서치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된 유럽특허출원의 명세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서치리포트와 함께 공개된다. 서치 리포트가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위한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판절차에서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특허허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특허취소는 지정국의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능하다.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유럽특허제도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 하나의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EPO 각 계약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간편성과 경제성이 인정되고, EPO는 서치심사와 실체심사를 엄격히 분리시켜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권리를 설정해주므로 유일무이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침해소송 및 무효여부에 관한 다툼은 회원국 국내법에 의거 처리된다. 강제성이 없으며 특허출원인은 가입국 국내법에 의한 절차와 유럽특허조약상의 절차중 선택이 가능하다. 3인 기술심사관의 합의체에 의한 공동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치리포트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Information

72

임선하 창의교실
창의로 발명 꺼안기

76

발명아이디어 성공을 찾아서
사랑의 힘

80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82

특허 Q&A
지식재산권 관련 묻고, 답하기(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6

건강하게 삽시다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 예방 및 재활 치료과정

89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과정



창의로 발명 꺼안기

창의성과 발명은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학업적 똑똑이와 실생활 똑똑이를 구분하라



임선하 현대창의성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1983-1995)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현재 현대창의성연구소 소장

활동

EBS - 나도 논리 박사, 창의성 교육
KBS - super TV, 엄마랑 나랑
MBC - 파워 소비자 시대(학습지 평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OUN - 창의성 교육 특집 13회
기타 수회 출연

세계적으로 그 통찰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겐이치는 최근 에발간된 [부의 위기]라는 책에서 일본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교육을 들고 있다. 아니 딱 하나의 개혁 영역만을 꼽으라면 교육을 꼽을 것이라 말한다. 인재가 중요한 시대에 인재를 길러주기 어려운 교육 시스템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인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요령 있게 수행하는 아이’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립형 인재’를 말한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작용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섰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곤란하거나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가의 부를 결정짓는 경제영역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처럼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어 판매하던 경제구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새로운 것 즉 아직까지 아무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을 생각해내고(아이디어 발명), 이런 생각을 현실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생산기술 발명), 이런 산출물을 적절히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아이디어(판매기술 발명) 등이 새로운 경제의 핵심이다. 이 새로운 경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적이 없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하려면 스스로 미지의 대지를 개척해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이 곧 창의적 사고 능력이다. 이런 능력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다루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학교는 그 탄생 배경부터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춘 시

발명은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의 필요에 의해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현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낼 수 있다.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이런 현상을 자신의 최근저서 [부의 미래]에서 ‘속도의 충돌’로 설명하고 있다. 기업이나 사업체의 변화 속도는 시속 100마일이다. 시민단체들은 시속 90마일로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그 뒤에 한참 뒤떨어져서 달려오는 조직이 있다. 바로 시속 60마일의 가족이다. 가족의 변화는 이제 막 가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노동조합은 시속 30마일로 달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느린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보아도 한참 뒤에 털털거리며 달려오는 조직이 있다. 시속 10마일로 달리고 있는 학교이다. 그만큼 학교는 새로운 질서에 부합되지 못하는 변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느린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는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조직들간의 속도 차이가 원만하게 조정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변화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느린 속도에 적응된 직원들은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조직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오마에 겐이치는 이런 문제를 예견한 듯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academic smart(학업적 똑똑이)와 street smart(실생활 똑똑이)를 구분한다. 학업적 똑똑이는 말 그대로 학교 성적이 좋고 정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유형의 사람이다. 이와 달리 실생활 똑똑이는 길거리에서 자랐다는 의미로, 실제 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성공한 사람을 가리킨다. 앞으로는 예기치 못한 일과 생각을 지혜롭게 소화할 수 있는 실생활 똑똑이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겐이치의 주장이다.

실생활 똑똑이는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학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자신의 전공 영역에 고집스레 갇혀 있던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근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도출된다. 아니 요즘처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관심 영역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디어들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산업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섭(統攝)’ 바람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접근이다. 통섭이 더 구체화되면 인문학 중에서도 서로 다른 전공 영역이 하나로 합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를테면 언어학과 경영학이 결합되어 인간의 마음과 말을 의미있게 고려하는 경영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인 통섭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다. 기업들은 수년 동안 미래의 신수종 사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부에서 ‘천재’도 영입해 왔지만 아직 눈에 띄는 것은 없다고 한

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통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일상적인 삶의 장면에서 이런 통섭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있다. 스스로를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인생업그레이드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열려 있는 기회이다.

발명 인생 업그레이드 마인드 분석틀

품계	이름	요구 조건	활동 기준	집단
聖品	발명성인	노력+다양성+자각+달관	철학(일가)	community
道品	발명도사	노력+다양성+자각	반성과 성찰(기준)	추종자
藝品	발명예술가	노력+다양성	창의성 의사결정 (우선순위)	매니아
術品	발명기술자	노력	건강한 몸과 의지	동료
凡	보통인		생존	시장

위의 표를 활용하여 창의성과 발명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보면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자신의 발명능력이 향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력하는 발명가가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발명가가 발명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발명의 꿈을 실현시키려면 다양성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양성이다. 창의성은 다양성을 먹고 산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달리 말해 발명의 수준을 더 끌어올리려 한다면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은 생각과 발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이다. 모든 아이디어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런 단계에서의 활동이 무사히 끝나면 스스로 더 위 단계의 활동을 하고 싶어진다. 자신이 한 발명 과정이 제대로 진전되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얻어진 산출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반성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중국에는 달관의 경지에 다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조건들이 다른데 어떤 단계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기술로 접근하던 사람이 예술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다양성이다.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다양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발명의 성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을 실생활 장면에 놓고 단련했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실생활 똑똑이가 발명도 잘 한다

앞에서 다룬 내용을 구체적인 생활 장면과 연결지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발명적 사고와 행동의 지침이 얻어질 것이다.

세상을 만나는 수준별 발명 활동의 내용

수준	의미	발명 활동
經 수준	체계화된 발명 성공 사례를 진지하게 살피고 마음에 새기는 수준	• 세기적인 발명 사례 집중 탐구 •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수정하기
論 수준	시대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발명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	• 발명 아이디어를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협의하고 법령을 살피기
疏 수준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들을 좀 더 광범위하고 일관성있는 틀로 정리하는 수준	• 발명의 성공 가능성을 특정 집단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기
說 수준	발명 아이디어를 자신의 기준에 의해 정리하는 수준	•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자신의 필요와 판단 기준에 의해 다듬기
術 수준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명과 관련된 사례찾기 수준	•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물의 개선점 찾기 • 발명 마인드 갖기

발명을 창의성과 연결짓는 노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기존의 학교 공부가 학습자 개인과는 비교적 무관한 과거의 것에 중점을 둔다면, 발명은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의 필요에 의해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현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낼 수 있다.

발 • 특 2007. 3



사랑의 힘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고민거리와 불편한 점을 유심히 살펴 해결책을 만들어보자.
어느새, 나도 발명의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전,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한국과학기술인협회 이사 겸 사무총장
현,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발명가가 되는 60가지 방법』 등 발명도서 97권 집필
170개 신문잡지에 발명칼럼 등 3,000여편 발표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 산업포장 등 수상
기업, 단체, 학교, 연구소 등 출강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약한 여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자동차에 깔린 어린 아기를 구하기 위해, 무거운 자동차를 들어올렸다는 어머니의 ‘초인적인 힘’ 이야기는 ‘모성’ 즉 ‘사랑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한다.

우리 국가 대표 축구 선수들이 약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는 신화를 거둔 것도 온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처럼 사랑의 힘은 때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고 인간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또 강하게 만든다.

사랑의 힘은 비단 운동경기나 위험한 순간에만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다. 애정은 아이디어의 원천이기도 하다. 여성발명가 중에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많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다.

만약 어린 아들이 피부병에 걸리면 어머니는 그야말로 피부병에 관한 박사가 된다. 온갖 의학서적을 뒤지고, 여러 사람의 경험담을 수집한다. 좋다는 방법은 모두 사

용해본다. 때로는 스스로 새로운 비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데 가장 기본적인 행동 수칙이다.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으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면 당장 한번 시도해보자. 여간한 관심과 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랑은 사람을 관찰자로 만든다. 어머니는 용케 아기의 칭얼거리는 뜻을 알아낸다. 배고파 울거나 아파서 울거나 혹은 잠투정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똑같은 칭얼거림으로 들릴 뿐인데 어머니는 금새 그 뜻을 알아듣고 아기의 등을 토닥인다. 이것은 단순히 엄마와 아이 사이에 통하는 교감 때문이 아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일거수 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관찰 또한 아이디어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아주 작은 것까지 관찰하고 세심히 배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발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때문에 사랑과 애정은 자연히 좋은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것이다.

발명사에는 발명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지 않은 몇진 아이디어가 많다.

대부분 전문 발명가가 아닌 주부들이 그 주인공인데 이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생활과 밀접한 아기자기한 발명품을 많이 남겼다.

가장대표적인것이남성용팬티와관련된아이디어들.

젊은 남성들이 즐겨 입는 삼각팬티는 사쿠라이 할머니로 알려진여성발명가의 발명품이다. 당시만해도남성의 팬티는 반바지형태가대부분이었다. 그것도무릎근처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가 대부분이었다. 지금이야 이해 못할 일이었지만, 당시는 오히려 짧은 팬티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겨울에는 상관없었지만 더운 여름에는 긴 팬티가 거추장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 더군다나 하루종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은 연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의 여름은 덥고 습도가 높기로 악명높은 날씨이기에 아이들은 긴 팬티 때문에 땀띠로 고생하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이런 점을 알아차린 것은 사쿠라이 할머니. 할머니는 어린 손자가 더운 여름날 사타구니를 긁어 발갛게 발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는, 아이에게 치렁치렁한 팬티가 거추장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은부끄러울게없는데, 팬티가짧은들어때. 긴 속옷 때문에 불편한 것보다 훨씬 낫지. 중요한 부분만 살짝 가리면 될거야’사쿠라이 할머니는 손수 어린 손자의 팬티를 잘라서 아주 작은 삼각모양으로 만들었다. 다리를 흰히 들어내고 사타구니만 가릴 수 있도록한 것이다. 훨씬 가뿐해진 팬티덕분에 어린 손자가 여름을 잘 견딘 것은두말할필요도없는일이다. 일은여기서끝나지않았다. 할머니의 팬티는 단순히 손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긴 속옷의 불편함은 모든 남성들의 고민거리 중의 하나였던 것. 할머니의 삼각팬티가 동네 아낙들을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짧고 가벼운 속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다. 평범한 할머니가 남성들을 불편함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팬티에 관련된 발명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의 한 새색시, 이 여성의



관심사도 공교롭게 남편의 팬티였다. 당시 남성들의 팬티는 앞트임을 단추로 여미도록 고안되어 있었는데, 덤벙거리는 성격의 남성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급하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단추를 제대로 여미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물론 단추 팬티에 익숙해진 남성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막 결혼해 남성의 세계를 접한 새색시로써는 단추가 달린 팬티가 어색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

‘화장실에 갈때마다 이 단추를 끄르고 잠그는 일을 반복한단 말이야? 만약에 술이라도 얼근히 취해서 제대로 손을놀릴수없을때는실수를할수도있잖아. 남자들은 여간 불편한게 아니겠구나.’

아닌게 아니라 그녀의 남편도 단추가 살갓을 자극해 거추장스럽다는 말을 여러번 했었다. 게다가 직업상 인





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실때도 있는 터라, 새색시로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모든 일의 출발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법. 한번 관심을가지기 시작하자,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무심코 스쳐지나가던 것들도 그 쓰임새나 모양이 새삼 눈에 들어온 것이다. 하찮은 것도 모두 힌트가 되는 것들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의 옷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한 그녀는 탄성을 내질렀다. 지갑에 달려 있는 속지갑이 바로 비밀의 열쇠였던 것이다.

‘맞아, 바로 그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천을 엇갈리게 겹치면, 단추를 달지 않아도 벌어지지 않겠다.’ 그녀의 생각은 적중했다. 팬티의 앞트임을 두 개의 천으로 넉넉히 겹쳐두니, 벌어지지 않았고 소변을 보기도 편했다. 남편도 그녀의 생각에 놀라워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당장 만들어 내다 팔아도 될 정도로 완벽해.”

그녀의 아이디어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상품화에 성공했다. 단추를다는공정을 생략하니팬티의 가격도 싸고, 모양도 훨씬 좋았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은 당연한

일.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도 당당한 발명가로서 발명사에 남게 된 것이다.

또아이에대한사람이발명품으로승화된사례도많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도넛 베개가 그것.

아기가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은 모든 엄마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특히 어린아기 때에는 모든 것이 성숙하지 않아서 엄마의 손길에 많은 영향을 받게된다. 때문에 엄마들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기 마련, 베개 때문에 머리 모양이 납작하게 눌리지는 않을까. 엮는 방법 때문에 다리가 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다.

첫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한H씨도마찬가지걱정을달고사는 엄마였다. 그녀의고민거리는 아기의 잠버릇. 몸을 뒤척이다가 아기가 뒤집어질 경우, 베개나 이불에 눌러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H씨는고민이많았다. 혹시나자기아기에게 그런변이생길까걱정이된것. 또납작한베개때문에뒤통수가납작해지는 것도 고민거리였다.

그녀가 도넛을 먹다가 새로운 베개를 만든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매일 아기의 새로운 베개를 생각하다보니 자연스레 베개와 도넛을 연결하게 된 것이다.

‘그래맞아, 베개라도넛처럼만들면, 뒤통수가구멍으로 들어가서 납작하게 눌릴 일이 없겠다. 또 설령 뒤집어진다해도 도넛의 구멍 때문에 입이랑 코가 바닥에 닿지 않으니 질식사 할 일도 없을거야!’

이렇게 해서 신생아용 도넛 베개가 탄생한 것이다. 이 베개는 유아용품 점에서 날개 돌친 듯 팔리고 있다. 보통 베개보다도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한 일. 그래도 그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엄마들에게 대인기라고 한다.

사랑과 발명의 공통점, 많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마음껏 사랑해보자.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고민거리와 불편한 점을 유심히 살펴 해결책을 만들어보자. 어느새, 나도 발명의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후쿠이에 주전자 뚜껑 구멍 안

구멍 하나도 꼭 필요한 곳에 잘 뚫으면 발명이다

구멍 하나도 꼭 필요한 곳에 잘 뚫으면 발명이다. 일본의 후쿠이에에는 주전자 뚜껑에 뚫은 구멍 하나로 발명가가 되어 부를 누릴 수 있었다.

그는 욕심이 많지 않아 자기의 생활에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맡겨지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는 모범사원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쿠이에에는 과로로 지쳐 감기 몸살로 앓아눕게 되었다.

‘ 할 일이 많이 밀려있는데 큰일이구먼... 웬만하면 털고 일어나 출근하려 했으나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치료를 겸해 하루 쉬기로 결심하고 침대에 누웠다.

침대 옆에는 난로가 타고, 그 위에는 물이 반쯤 담긴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쉬어보는 편안한 하루였다.

침대에 누워있던 후쿠이에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단잠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

‘ 덜컹덜컹... ’

주전자 속의 물이 끓자 뚜껑이 들썩거리는 소리.

주전자 속의 수증기가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했다.

주전자를 내려놓을까도 했지만 방안이 건조하고 아예 열어놓자니 방안이 수증기로 가득 차 버릴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후쿠이에의 눈에 송곳이 보였다. 순간 신경질적으로 송곳을 집어들어 주전자 뚜껑을 찔러 버렸다.

신기하게도 뚜껑이 들썩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수증기 또한 방안의 습도 유지에 그만이었다.

‘ 잘랐다. ’



한참 동안 늘어지게 자고 난 후쿠이에에는 주전자를 살펴 보았다.

주전자 속의 물은 계속 끓고 있었고, 송곳 구멍 사이로 새어나오는 수증기는 아름답기까지 했다.

‘ 모든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도록 해야겠다. ’

채 완쾌되지도 않은 몸으로 특허청을 찾아 실용신안출원을 마쳤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전자 공장은 물론 냄비 공장에서까지 그를 찾아왔다.

로열티를 지불할 테니 권리를 양도해달라는 것.

망서릴 것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구멍 뚫린 뚜껑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후쿠이에의 수입은 눈이 쌓이듯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wangyj39@dreamwiz.com

발 • 특 2007. 3

아무도 몰랐던 물래발명이야기

얼덜슨의 일회용밴드

글그림 : 김민재

누구나 상처가 나게 되면 참는
물래가 있어서 그런 바운 '대스밴드'

우리에게는 밴드의 대명사로 통하는
'대스밴드'는 정확히 말해서 일회용
밴드라는 이름이다.



이 일회용 밴드는 현대인에게는 없어서
안될 응급처치용으로 자이점이라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이다.

작은 구멍도 승수 뚫기 상처에
공기가 드나들도록 배려했고,
상처의 완치율을 높여 하도록 붙여
놓은 거즈조각.



이 일회용 반창고의 탄생은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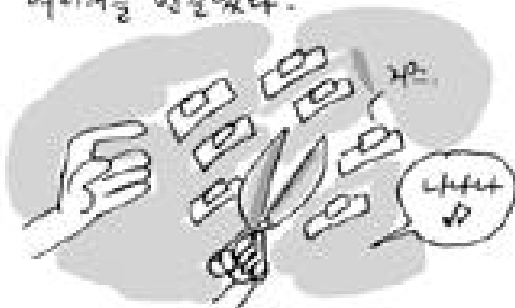
얼덜슨의 생활생활은 순조롭고
행복했다. 다만 그의 아내가
실수가 잦아 다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당신은 최후의 날 외과 치료용 테이프와 거즈를 이용하여 작은 조각을 만들어 아내의 손에 붙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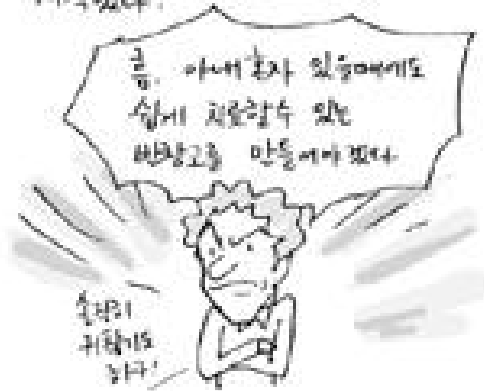
당시 당신은 '존슨 앤드 존슨'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방창고를 사용하는데 능숙했다. 그는 작은 조각의 외과용 테이프에 거즈를 붙여 여라개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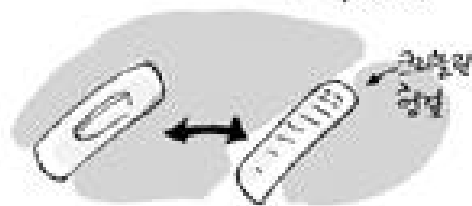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아내도 무척 만족해 했다.



그 이후에 당신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과용 테이프의 끈적끈적한 부분을 오랜연구 끝에 크리올린이란 물질으로 붙여 오래 보관 할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당신의 발힘용 방창고는 '밴드에이드'라는 이름을로 상품화 되어 전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행운도 가져온것이였다.



Question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의로 특허출원 할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 특허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특허법 제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를 불문하고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도 민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면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Answer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법인체로서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경우는 국가(대한민국)가 권리주체가 되므로 특허출원시에는 출원인을 ‘대한민국’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을 괄호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공립대학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이므로 국가에서 특허권을 소유하는데, 다만 2002. 7. 1부터는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승계하여 전담조직의 법인명으로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 출원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 39조 제2항)

Question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생산기술을 인수한 경우에 특허출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되는지요?

Answer

-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속하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승계인은 정당한 승계인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을 불문합니다.
-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특허출원전에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와 ‘출원인’이 상이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 보정은 내용보정과 절차보정이 있습니다. 내용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보정하는 것이고, 절차보정은 수수료 미납, 첨부 서류 미제출 등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내용보정은 다시 명세서의 또는 도면의 내용에 흠결을 스스로 보정하는 자진보정과, 출원에 대한 심사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발송한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보정이 있습니다.
- 자진보정 및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의 허용범위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과 동항 제1호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규사항추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정기간 (특허법 제47조)
 - 자진보정 : 특허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시 심사관으로부터의 거절이유통지 등이 없는 한, 출원인은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에는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한 보정을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 통지보정 : 자진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지정기간내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은 출원인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회수의 제한없이 연장가능하나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시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한 보정시기는 출원일부터 2월 이내(실용신안법 제13조1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9조) 또는 실용신안 기초적요건심사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기초적 요건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장기간은 1월로 하고 연장횟수는 1회에 한합니다.
- 보정인 : 보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보정료
절차보정(위임장 미 제출등), 내용보정(명세서등 보정) 구분없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보정료 13,000원, 전자문서로 제출시 보정료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합니다.(특허청 고시 제2005-20호)

Question

자진보정일 경우와 통지에 의한 보정일 경우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까?

Answer

- 자진 보정과 통지에 의한 보정은 수수료에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절차보정(위임장 등 첨부서류 미 제출), 내용보정(명세서등 보정) 구분없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보정료 13,000원, 전자문서로 제출시 보정료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Question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nswer

- 납부자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절차의 번거로움과 반환대기시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말고 추후 보정요구서를 받은 후 보정요구서에 첨부되어 발송되는 납입영수증으로 수수료 납부하거나 서지사항보정서를 제출하고 다시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자연상태의 사물에서 특정한 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하여 순수한 형태의 천연물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천연물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의 보호차원에서 물질특허를 불허하였으나, 1987. 7 법 개정을 통하여 화학물질자체, 의약 등 새로운 물질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 9월부터 물질특허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 즉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는 아스피린, 요소, 파라치온, 색소 등의 화학물질과 자연물에서 추출, 분리, 정제하여 얻을 수 있는 정제소금, 생약, 추출성분 등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천연물은 물질특허로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인 의약도 물질특허로서 특허의 대상이 되며, 의약은 하나의 성질로 된 단일의약과 2이상의 물질 또는 의약을 혼합하여 만든 조성물로서의 혼합의약을 포함합니다.

PUZZLE

함께 풀어봅시다

①	②		④		⑤	
	③					
⑧					⑥	⑦
⑨	⑩			鎡		
			鎗			
錯					鎛	
			鎗			

2월호 즐거운퍼즐 정답

운	하		전	대	미	문
	식	수	대		장	
시			작		이	역
보	호	국		상		지
	각		재	상		사
사	지	유	무		간	지
	세		부	지	사	

즐거운퍼즐정답은다음호에게재하며, 정답자중3명을추첨하여 월간<발명특허>지1년정기구독권을드립니다. 많은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정답을적어매월일까지보내주십시오.

● 가로 열쇠

- 수면에이는잔물결
- 조선왕조때 관청에서관리들의잘못이있을 경우잘못한자에게벌로술을사게해같이마시던일
- 실제로움직이지않는대상이어떤조건하에서움직이는것같이보이는운동
- 시내가흐르는골짜기
- 높은곳에서비스듬히내려다본것처럼그린그림
- 대통령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정부의권한에속하는중요정책을심의하는회의
- 어머니를대신하여유아에게젖을먹여양육하는여자
- 땡 · 닭 · 오리등을파는가게
- 지열로땅 속에서평균기온이상으로데워져솟는 지하수(사소의광물질이함유되어의료에효험이있음)

● 세로 열쇠

- 대대로내려오는가문의지체
- 불에타기쉬운성질
- 구름이움직이는속도를측정하는기계
- 일정한기간을두고주기적으로분출하는온천
- 좋은일이있을조짐
- 사물에대한회포의느낌이한이없음
- 뜻이유사한말
- 아내의친어머니
- 흠결이없이완전함



김완호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 예방 및 재활 치료과정

뇌졸중은 단일 질병군 중에서 가장 흔히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예방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도 전체적인 장애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 단계는 뇌졸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래도 뇌졸중이 발생하면, 두 번째 단계는 지체하지 말고 조기에 응급치료를 시행하여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뇌 손상의 진행을 막고 안정되었을 때, 세 번째 단계는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재활을 시작하여 합병증 발생을 막고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재활치료가 완료되었을 때, 네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재활과 건강관리를 통하여 장애의 심화를 막는 것이다.

1단계 : 뇌졸중의 예방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를 잘 알아야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예방 가능한 확실한 위험인자들은 고혈압, 흡연, 당뇨병, 경동맥 협착증, 고지혈증, 심장

질환 등이다. 그 외에도 아직 예방의 효과는 확실하지 않지만 발생의 위험을 높일 것으로 알려진 인자들은 비만, 과음, 운동부족 등이다. 확실한 위험인자지만 예방이 불가능한 것은 나이와 뇌졸중의 과거력이다. 과거에 일시적인 마비 증세가 있었다가 완전히 회복된 일과성 뇌허혈증 같은 경우도, 잘 나았다고 안심할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예고증상인줄 알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2단계 : 급성기 응급치료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뇌세포는 단 몇 분간만 혈액공급이 안 되어도 손상을 입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다. 따라서 뇌졸중은 매우 응급을 요하는 질병이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은 의사들의 몫이지만,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식과 참여로 가능한 것이다. 일과성 뇌허혈증 같은 경우 사실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24시간 이내에 좋아지는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그냥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집에서 기다리기 쉬운데, 그랬다가는 치료의 적기를 놓치고 만다. 그 결과 손상된 뇌는 영구적인 후유 장애를 남기게 된다.

3단계 : 조기 재활치료

뇌졸중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한 급성기 치료가 마무리되고 환자 상태가 의학적으로 안정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진행이 없으면 의학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판단한다. 물론 여전히 필요한 의료진의 집중적인 돌봄 아래서 재활치료는 시작되어야 한다. 신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이어서, 침상에서 안정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동에 따른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뿐 아니라 회복도 어렵고 더디게 된다. 따라서 절대안정을 취해야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는 대개 1~2주 정도면 끝난다. 그리고 그 때부터는 본격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된다. 재활치료는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팀이 구성된 재활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재활 병동에서 받을 수 있다. 급성기의 치료가 생명을 보존하고 편마비 등의 신체적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면, 재활치료의 목표는 기능적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 즉 보행이나 일상생활동작을 훈련하여 독립성을 획득하는데 있다. 재활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어 있으며, 신



체기능의 회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처음 1~3개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다.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뒤로 미룰수록 장애는 심화된다. 뇌졸중 발생 후 의학적으로 안정되자마자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의 자연적 회복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첫 3개월 내에는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4단계 : 지속적 재활

뇌졸중 발생 후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적절한 재활치료까지 끝나서, 가지고 있는 장애 상태로는 최적의 기능적 수준에 도달하여 병원을 떠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신체적 기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신체 기능의 퇴보는 훨씬 쉽게 올 수 있다. 게다가 이전의 건강하던 모습과는 달리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이전의 생활환경에 돌아갔을 때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위축감은 장애, 특히 사회적 장애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재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원 시의 신체적 기능 상태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뇌졸중의 재발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해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보호자나 가족 간에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식준비, 금전 관리, 시장보기 등 가사활동과 전화사용 및 각종 도구 사용과 교통수단 이용, 취미활동, 종교활동, 성 생활, 여가생활 등이 장애의 고착과 심화를 막는데 중요하다. 가족 내에서는 병전 역할로의 복귀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보호자와 환자로서의 역할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 재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생활의 일부로 받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현실로는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병원에서는 통원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수익성과 접근성의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면 다시 입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들을 전전하게 되는 의료의 비효율성을 부추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지속적으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권한다. 점차적으로 서비스의 횟수나 강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 재활 서비스의 한 가지 대안으로 병원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낮병원 프로그램과,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개발하고 수행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제공 건강길라잡이
<http://healthguide.or.kr>

발 • 특2007. 3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 과정

성공하는기업의 Design&Brand 전략 _ 일반인 과정

과정소개

본 과정은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브랜드 및 디자인의 자산으로서 보호방법을 이해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침해 관련 분쟁을 방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브랜드와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학습대상

- 새로운 기술 또는 아이디어 상품에 기초한 창업준비생
- 첨단기술을 응용하여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소기업, 벤처기업 운영자
- 대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담당자

학습목표

- 쉬운 예를 통한 특허법/제도의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허명세서 작성 및 유의사항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권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소송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 특허분쟁시 효율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브랜드 개념 및 브랜드 보호제도
- 성공하는 기업의 브랜드 전략(사례) 및 분쟁 사례
-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 수립법 및 브랜드 전략 가이드

학습목차

1. 브랜드의 개념 및 브랜드 보호제도 일반
2. 브랜드 네임의 선정
3. 브랜드 네임의 올바른 사용
4. 기업의 브랜드 전략
5. 글로벌 브랜드 전략



강사	안태현/황은정 변리사
학습분량	총 10일차
수료기준	60점
평가기준	학습진도 100%
강사소개	안태현 변리사 한국기업평가원 기업가치평가사 특별과정 강의(특허관계법)(2005.11.) 현재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기계부변리사 황은정 변리사 현재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현재 한빛변리사학원 저작권법 강사 역임

6. 디자인의 개념 및 디자인 보호제도 일반
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보호를 위한 출원제도
8.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및 침해론
9. 권리로서의 디자인 활용사례(분쟁사례 포함)
10. 기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디자인 활용 전략

www.ipacademy.net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포탈사이트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청소년, 학부모, 발명지도교사, 전문가,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 여 개의 콘텐츠를 365일 언제나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2) 3459-2771~5 (한국발명진흥회 인력개발팀)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 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가액개월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 격	비 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원고모집안내 ◀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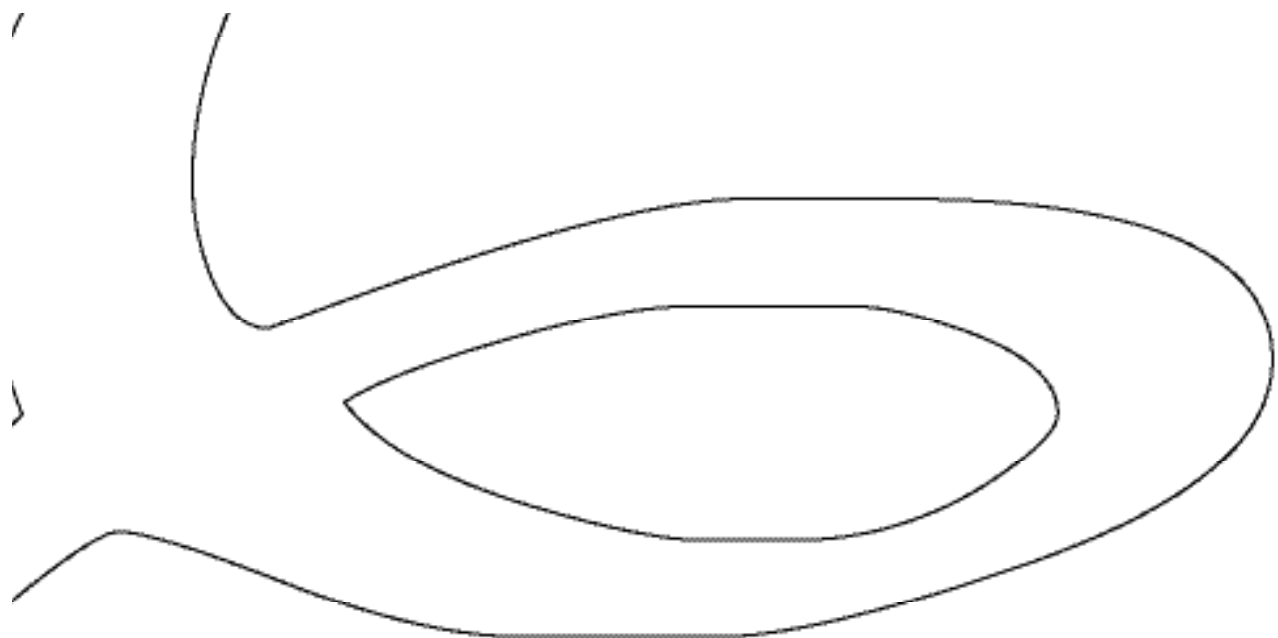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 관련논문, 발명칼럼, 판례등
- 원고제목: 관련 분야별로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 E-mail : eldaah7@kipa.org

광고및원고모집문의: 한국발명진흥회혁신기획팀TEL (02)3459-2726

우리회지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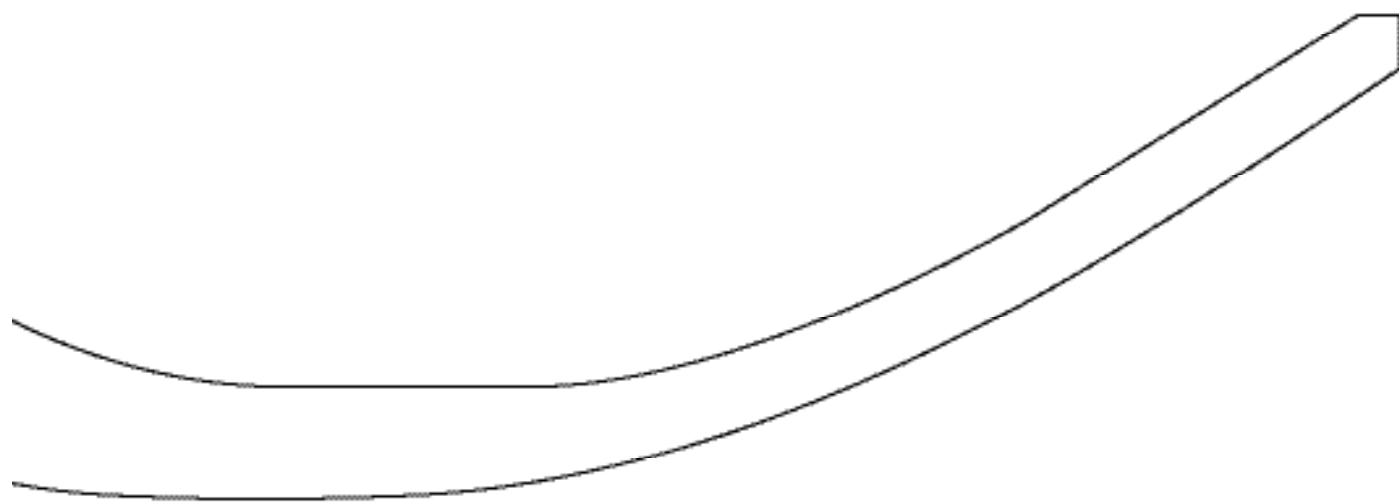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김창욱	김주병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문현회관 1층	051-645-9683
광주지회	이승기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3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대전지회	이상복	박병영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400 한국과학기술원 동문 창업관 2층	042-864-4307
강원지회	박진서	허동욱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5번지 벤처비즈니스살롱 1층	033-258-6580

편집: 혁신기획팀김민국(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IPSchool **사이버발명학교**

Education Leader
Intellectual Property School





IPSchool
사이버발명학교

Education Leader
Intellectual Property School

www.ipacademy.net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청소년사이트를 활용해 학교·단체의 재량활동 및 단체수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발명교육에 관심 있는 학교·단체면 어디나 신청가능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안내

별도의 회원가입은 하지 않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시 학생명단을 보내주시면 일괄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해드립니다.

발령된
회원가입

참가학생
명단제작

참가신청서
작성

참가신청서 작성후 3일후 사이트개설이 완료되며,
담당교사에게는 학생들 수강현황을 알수있도록 관리자모드를
별도로 제공해 드립니다.





재량활동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컴퓨터가 준비되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교실 단위의 수업으로 전체학습이 가능하도록 차시별 학습지를 함께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서도 함께 제공되므로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0
주차

15
주차

20
주차

30
주차

초등학교
중학교

발명·특허교육을 통한 전문인교육

전문계고등학교의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춰 발명·특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발명마인드 형성에서 각 분야별 특허출원까지, 졸업 후 진학에서 취업까지 진로 안내가 제공·지도될수있도록 제공하는 교과점입니다.

기계
분야

전자
분야

정보
분야

디자인
분야

전문계
고등학교

* 기계분야 기초과정 "기계원리를 이용한 발명"과정은 3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07년도에는 전자분야와 정보분야가 제작 될 예정입니다.



재량활동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안내

발명교육이 왜 필요한지, 발명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본 운영 프로그램은 발명교실·발명반, 재량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도)서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4단계

발명
마인드

발명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론
교육

발명이란 무엇인가?
발명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례
교육

역사속의 발명품에서
최신제품까지 발명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역량
체험

발명대회참가하기,
발명으로 대학가기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지재권교육의 중심"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로 오세요.



지재권교육 사이트
www.ipacademy.net

자아나는 발명 꿈나무에게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전문가에게는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지재권 지식 함양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재미있게 멀티미디어 지재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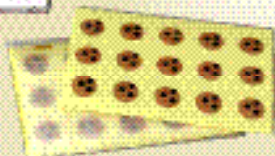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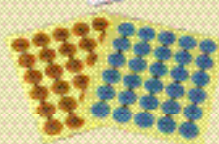


For healthy human race

발명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햇님들은 드디어 세계의 대체의학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침 + 뜸 = 효과를 아픈면 아픈 곳에서부터
인체의 천연약인 경혈의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햇님압봉

햇님압봉은 경희대학교병원 침구과
임상효과 확인,
압봉전 및 경혈점에 2~3일 붙이는 것만으로
로도 침과 뜸을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식
일회용품이다.
압봉3점 80개, 압봉3점 역용 150개,
1점 (손, 발가락용) 80개



一灸二美(1929)

1929뜸기(1개)와 1929약봉(30개)이 한세트 구성. 햇님뜸 1929는 두뇌건강에 기여하
기 위하여 달걀 계란의 뜸기로 머리와 귀에 뜸을 써서 두뇌기능을 향상시켜 가장
중요한 정신과 마음,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돕기 위해 창안 된 두뇌뜸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뜸기구이다.
1929세트 : 1929뜸기 1개, 1929약봉 30개

신기구(약봉)

강화사자발작 100%로 만든 제품으로 믿기가 적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약봉은 뜸기에 넣어 사용한다.
약봉A(90개, 52개), 약봉B(52개)



신기구(神氣灸)

햇님뜸 온기구(뜸기)는 뜸토와 생약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압으로 압축 뜸같이
에 견고하게 만들어 변형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열되면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등 각종 효과를 낸다. 단, 잘못으로 물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
뜸기 3세트, 1세트



인류건강을 위한 기업

핵심발명기업 '햇님'

제조판매처 : 보성사

영업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33-7 동양빌딩1층

공 장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206-3

Tel : 1588-1929, Fax : 031-828-0149, e-mail : grigo@haitnim.co.kr

<http://www.haitnim.co.kr>